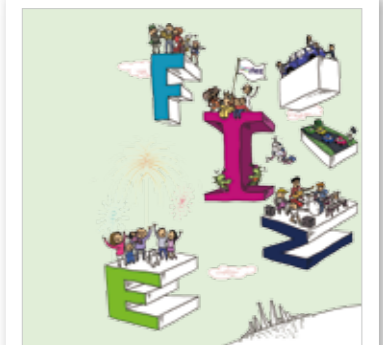


IFEZ,
세계와 함께하는
강성북한
시장



IFEZ,
세계와 함께하는
강성북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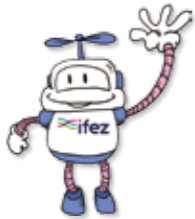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콘텐츠 가이드 북



IFEZ,
세계와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



CONTENTS



IFEZ, **행복한**
세계와 함께하는 **도시**



I. 인트로	7	3. 청년벤처 산업의 중심 도시	83	7. 물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을 담은 도시	125
II. 만화로 보는 인천	13	■ 갯벌타워	84	■ 센트럴파크 공원	127
1. 진행도우미 Charters	14	■ 미추홀타워	89	■ 달빛 축제 공원	132
2. 자 떠나보자! 인천으로	15	4. 살기 좋은 글로벌 이웃들의 도시	93	8.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도시	137
3. 한국 역사의 관문 인천	30	■ 더샵퍼스트월드	95	■ 트라이볼	139
4. 한반도의 배꼽, 송도	37	■ 센트럴파크 I	98	9. 가치와 함께 성장하며 기억하는 도시	145
III. IFEZ를 대표하는 주요 시설들	53	■ 센트럴파크 II	101	■ 컴팩스마트 시티	147
1.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	55	5. 활발한 서비스 산업이 삶과 연계되는 도시	103	■ 컨벤시아	151
■ G-Tower	56	■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105	10. 세계를 향해 열린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155
■ NEATT 동북아무역타워	67	■ NC큐브	109	■ 인천대교	157
2. 창조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거점 도시	71	6. 삶과 교육이 가까운 국제교육도시	113	■ 인천국제공항	161
■ POSCO E&C	73	■ 채드워 국제학교	115	IV. 만화로 보는 IFEZ 비전	165
■ 셀트리온	79	■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118	■ 부록: 건물주소록 등	170
■ 삼성바이오로직스	80			■ 송도 안내지도	172

발간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8월에 지정된 인천경제 자유구역은 미국 맨하탄의 2배, 서울 여의도의 20배인 169km², 5,219만평의 면적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09년 1단계를 완료하였고 2022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다를 메워 無에서 有를 만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했고, 갯벌만이 있었던 곳에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세계적인 대학들이 들어서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변해가고 있으며, “꿈을 꾸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글로벌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화’입니다. 교육, 의료, 마이스(MICE), 관광 엔터테인먼트, 숙박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 글로벌 서비스 산업의 거점이 되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끄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서 창조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IFEZ, 세계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발간은 그동안 IFEZ가 발족 및 성장해 오면서 함께 세워진 도시의 건축물, 공원에 담겨진 역사와 의미, 상징성을 찾아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들었으며,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 기록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IFEZ의 이념과 지향점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IFEZ를 만들었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빠져봅시다...

2014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IFEZ, 세계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I

인트로



IFEZ가 만든 송도국제도시를 읽다

송도국제도시는 세계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며, 인천국제공항 및 도로와 철도의 접근성이 높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배경으로 송도는 베니스의 대운하, 홍콩의 스카이 라인,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뉴욕 센트럴 파크의 모습이 곳곳에 담겨 지도록 계획되었다.

송도 개발 초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갯벌을 매립해 땅을 만들었던 당시의 황량함과 드넓음을 떠올리며 웃는다. 누구도 이곳이 현재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현재 글로벌 도시의 기능을 담은 최첨단 건물과 상업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송도는 국제 창조경제의 거점이 되기 위한 복합 서비스 산업 지구 등 글로벌 경제 거점, 글로벌 스마트 시티 구현의 완성을 위한 계획 시설들이 다양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제적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밀집한 균형 잡힌 국제도시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의 눈과 귀가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쏠리는 이유는 이곳이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과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의 거점지이며, 산업과 학술, R&D가 연계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도식 기반사업의 집적기지로 컨벤션 및 전시장을 포함해 국제비즈니스센터가 조성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건축물과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계획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원스톱 솔루션 환경을 제공하는 뛰어난 도시 경쟁력을 가지며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U-IT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U-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도시이자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생태환경을 조성해 에너지 저감도시를 건설하는 ECO-CITY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10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빠른 속도로 개발을 완성해 가고 있다.

지금부터 글로벌 창조경제 거점도시 송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나보자.

세계가 읽는 송도, 세계가 말하는 송도의 일면을 펼쳐다

2008년 3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08 세계초고층학회 총회에서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전 미국 환경청장은 42개국의 참가자들 앞에서 '신생도시 한국'이라는 주제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친환경)과 탄소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요소 등을 고려해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경제 활동과 환경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의 모델이 될 것이다.'

2010년 3월, 세계적인 석학 존 카사르다(John Kasarda)와 기자 출신의 그렉 린지(Greg Lindsay)가 공동 출간한 책인 에어로폴리스 'Air port', 'metropolice'를 합성한 신조어에서는 송도국제도시를 가장 이상적인 에어로폴리스로 손꼽고 있다.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일상 생활 중에도 즉시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도보로 30분 이내에 주거와 직장, 교육, 문화, 쇼핑, 레저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도시적 문화생활, 국립·민간연구소 및 첨단제품생산시설 동시 유치, 첨단기술분야 지원 네트워크 형성, 다국적 문화 교류 교육시스템 구축 등 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프랑스 민영 방송사 카날 플러스(Canal+)의 간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나비효과(L'Effet Papillon)'는 '주목 받는 도시, 송도'를 주제로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송도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요소가 집약된 곳으로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의 표본이 될 것이며 고도의 첨단기술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방문해 홈패드를 이용한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쓰레기 중앙처리장치를 체험하며 수준 높은 기술구현에 감탄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ABC 방송국 지역 네트워크인 KG0-TV는 'ABC7 뉴스'에서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룬 사례로 송도국제도시를 소개했다. 기사는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 스캇 서머스(Scott Summers) 상무와 동행하며 송도 센트럴파크, 잭 니콜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등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시설들을 살펴봤다. 또 화상회의시스템인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와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송도의 각 가정과 회사를 연결해 진정한 스마트 라이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기술들도 소개했다.





II

만화로 보는
인천

1. 진행 도우미 CHARACTERS

1. Main Charac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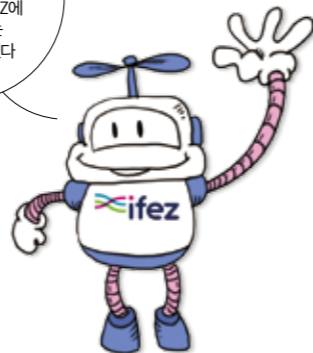
오라(IFEZ 상징캐릭터),
호야(한국 상징캐릭터),
용용(중국 상징캐릭터)

2. Sub Characters

통오, 까꿍, 무초, 통아(제3국 캐릭터들)

오라(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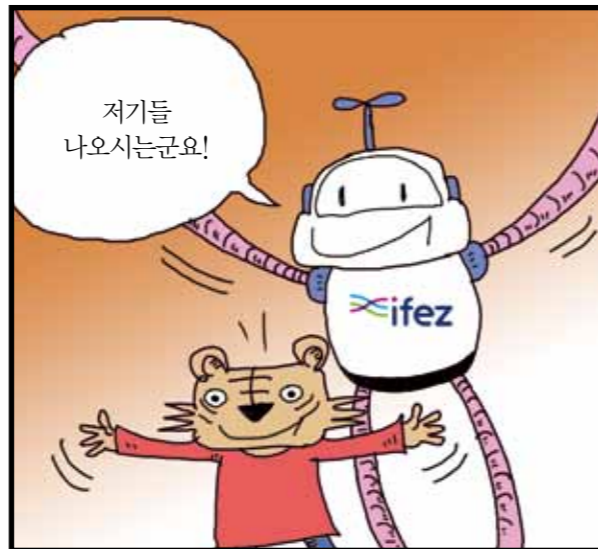
IFEZ 상징캐릭터,
'세계인이여 IFEZ에
다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자 떠나보자! 인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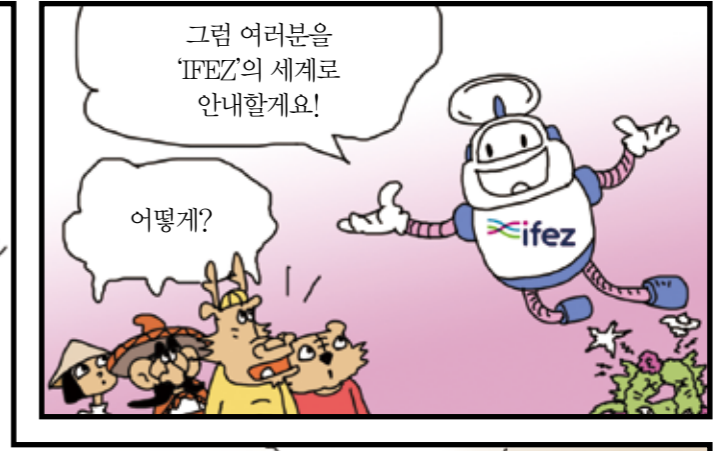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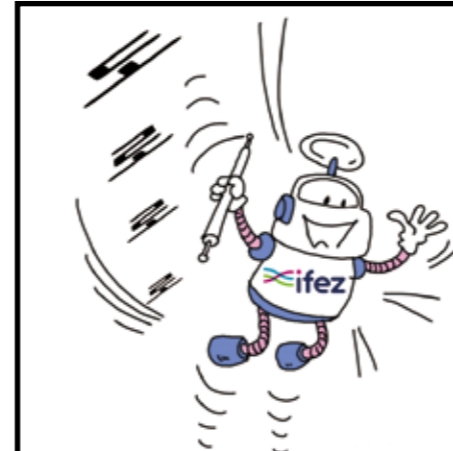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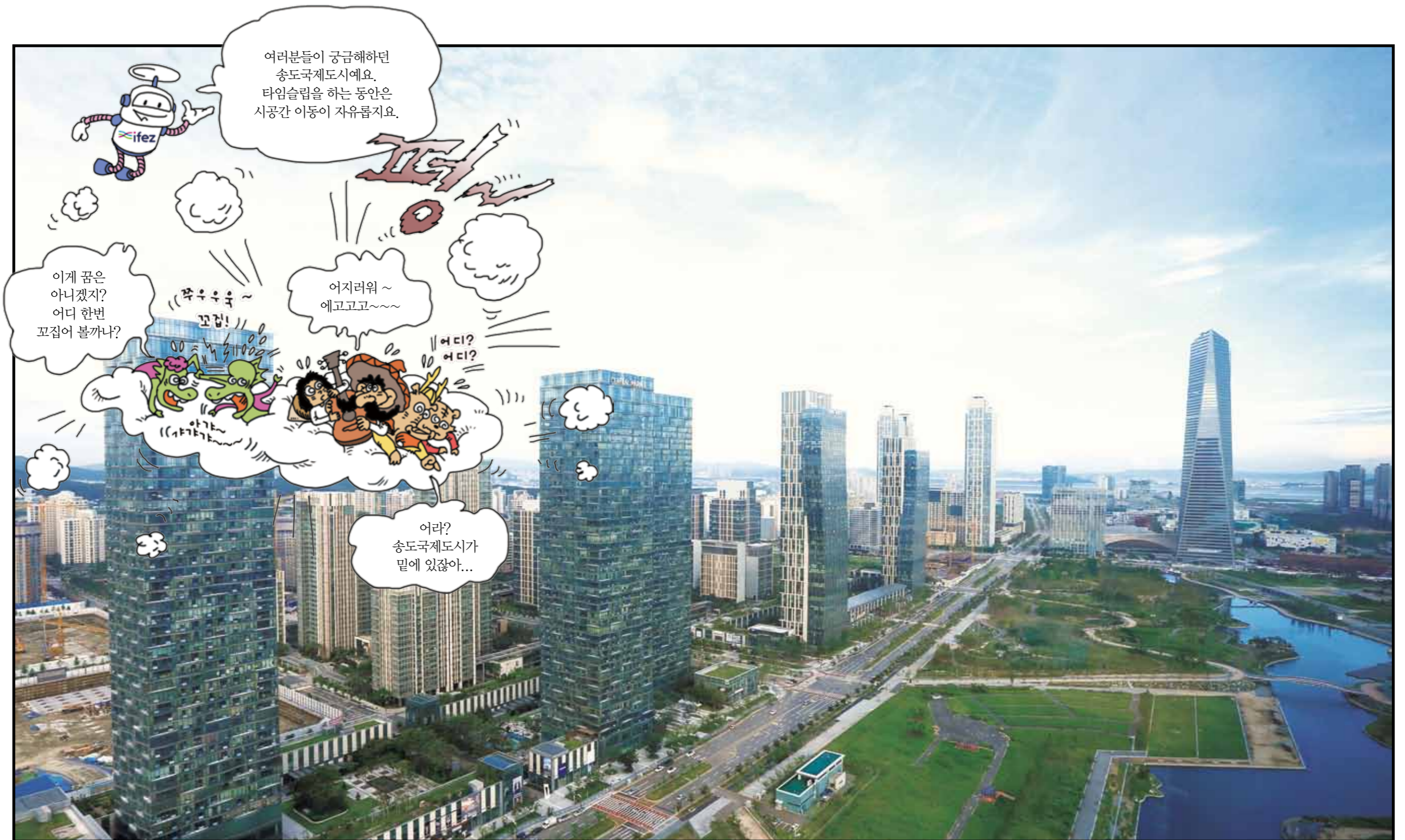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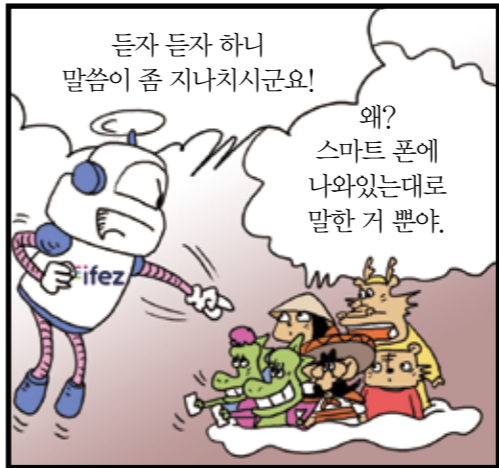
*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총 169.5km² 규모가 지정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입니다.]





*타임슬립(Time slip) 1994년 일본의 무라카미 류의 소설 《5분 후의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시간이 미끄러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초자연적으로 시공간을 이동하는 시간여행 개념을 뜻하며 타임머신과 같은 기계적인 시간 여행이 아니라, 자연스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는 시간여행을 뜻함.





* 동학혁명(東學革命) 조선 시대, 1894(고종 31)년에 동학도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혁명.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농민들이 항거한 데에서 발단하여, 부정부패 척결과 척왜양이(斥倭攘夷)를 주장하였다. (유익어)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 갑오농민혁명(甲午農民革命), 동학 농민 운동(東學農民運動), 동학 운동(東學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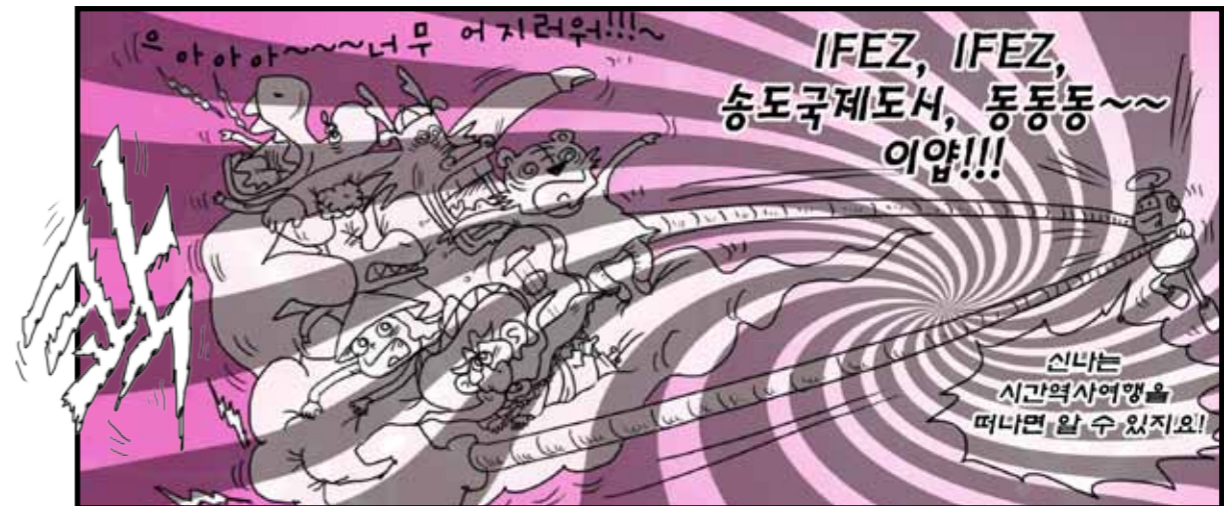
삼면이 바닷가인 대한민국의 해안가 어디를 가봐도
해송(海松) 방풍림(防風林)은 흔한 풍경이었다.



* 인천송도 지명유래(참고 -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국토지리정보원))



* 수인선(水仁線) 경기만의 소래(蘇來) · 남동(南洞) · 군재(君子)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수송하기 위해 1937년 8월에 남인천 ~ 송도 구간으로 개통된 후 수원 ~ 송도 간 46.91km만 운행되다가 경제성이 낮아져 1995년 12월 31일 영업을 중지한 협궤철차



* 성(聖)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틴어: Sanctus Aurelius Augustinus, 354년 11월 13일 ~ 430년 8월 28일) : 4세기 알제리 및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로, 서방 교회의 4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

3. 한국 역사의 관문 인천(仁川)



*삼국사기 제23권 백제본기제1시조온조왕(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第一 始祖溫祚王)



* 인천시민의 날의 유래 조선조정에서 1413년 10월 15일에 인천이라 정명(定名)한 날을 인천시는 1993년부터 이 날을 '인천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데 원래의 정명일인 10월 15일은 '음력'이므로 현대적 관점에서 '양력 10월 15일'로 새로이 지정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는 바다를 봉쇄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국책으로 펼쳤기에

이제부터
바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노라!
이를 어길시에는
국법에 의거,
혼썰을 낼 터이니
그리들 알거라!
어흠!

나으리...
소인들은 그럼 굶어
죽으란 말씀인가?

인천 지역의 해상 경제활동도
위축될대로 위축되었고

아우야~ 미안타..
여의치가 앓구나...
근데 니도 감춘 게
에게계로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 역시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금기야 조선은 천금 같은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말았다.

비록, 1876년 “강화도 수호조약”^{*1}이란 미명아래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제로 쇄국의 빗장이 열렸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로구나...

조선이노
물리한 사인이노
의 팍팍하므니다!
히히히 ~

역사의 아이러니는

올지!
위기는 위험한
기회였다!

갑자기 왜
그러시니까?

*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고종 13년(1876)에 운요호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맺어진 불평등조약이자 외국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인천을 우리나라 근대사의
힘찬 시발점이 되게 하였다.

와! ~ ~
바라보입니다.
안보입니다!

수업중

인천 개항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그래서
뒤늦은 근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데?

아~
그건 말이죠!

1883년(고종 20년)에 제물포(인천)가 개항하자마자 당시의 근대 문물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인천에서 번진 개화의 불길은
조선 전체로 요원지화* 처럼 번져 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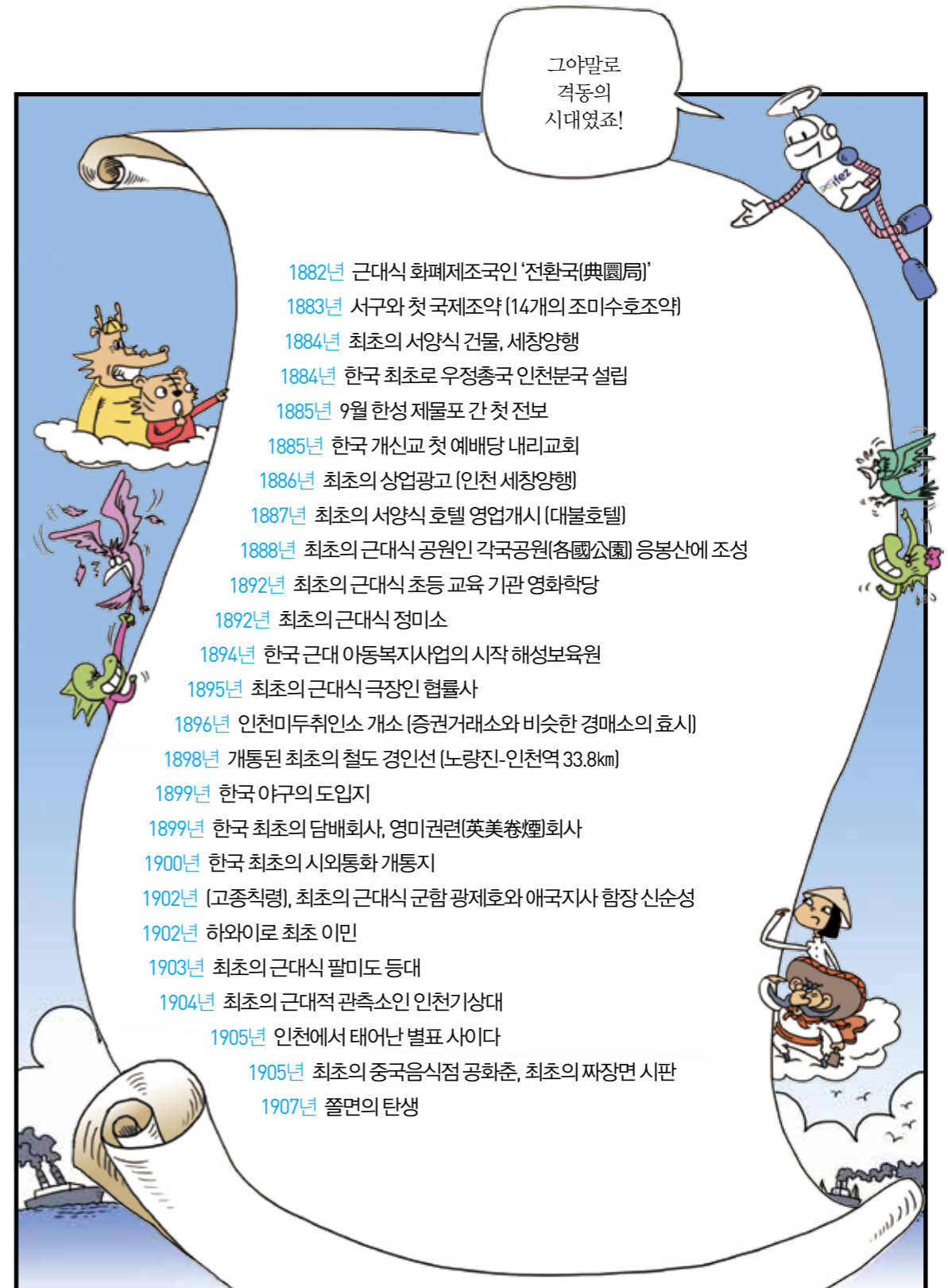
잠자던 조선을 깨우게 하였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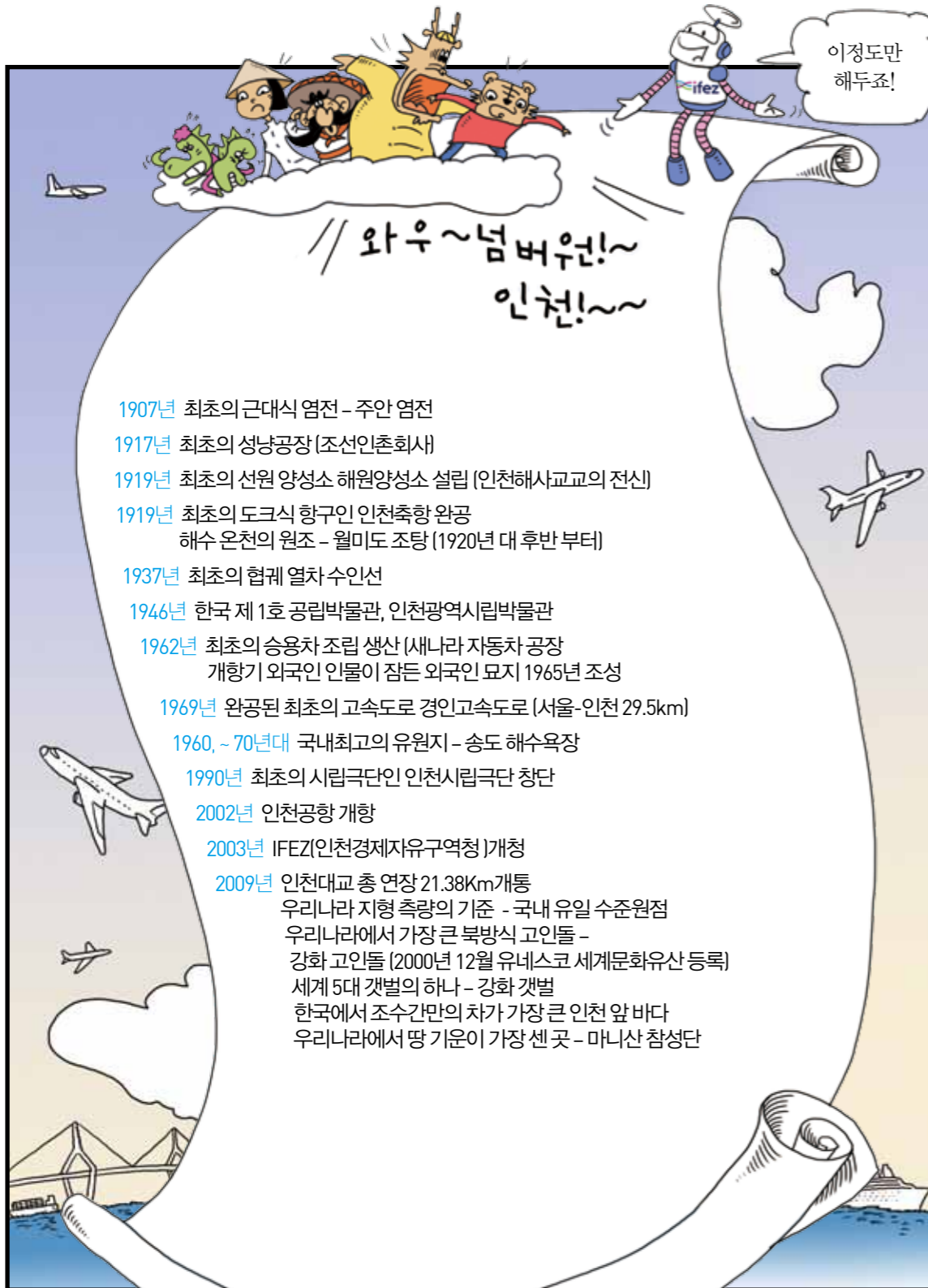
정신차리시오.

개항장 인천은 개화의 선구자로서

개화

* **요원지화**(燎原之火) 무서운 형세로 타 나가는 벌판의 불이라는 뜻으로, 세력이 매우 대단하여 막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쓰나미** 지진해일을 뜻하는 쓰나미는 일본말로 쓰나미(つなみ), 인데 국제적으로는 쓰나미로 통용된다.





4. 한반도의 배꼽, 송도(松島), 동북아시아의 옴파로스!

일찍이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 같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그들의 예언이 현실로 대두 될수록 세계인들은 인천을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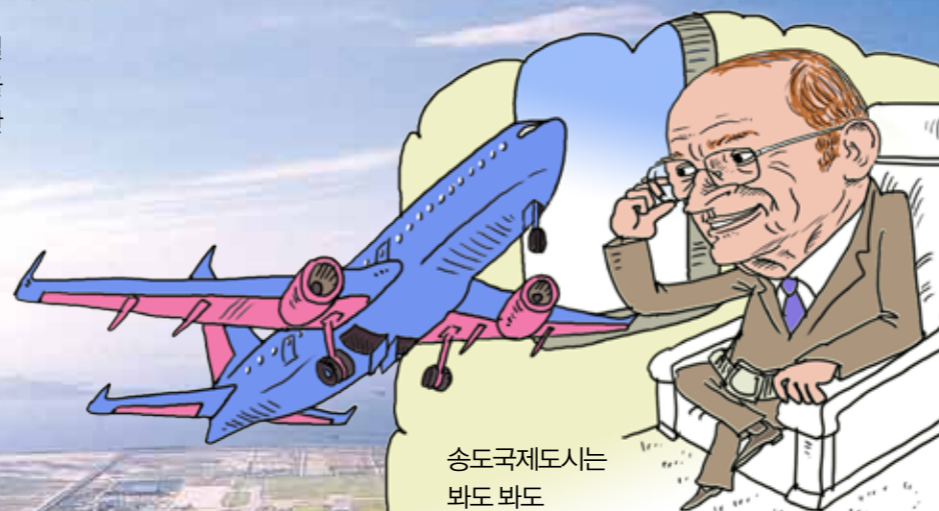


엄밀히 말하자면 송도국제도시를 주목하고 놀라워 하고 있다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 Giovanni Arrighi 월러스틴과 더불어 대표적인 세계체제론자로 산업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시작으로 여기는 월러스틴에 비해 아리기는 상업자본주의를 강조함으로 쉐브로델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패권국의 헤게모니와 자본주의 순환을 분석한 학문적 업적으로 유명하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도 정 중앙 북서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전세계 어디로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국제항구도시 인천과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을 배후에 두고있다. 2001년,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 게일인터네셔널(GIK)의 스티븐 개일 (Stan Gale) 회장은 헬리콥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이 완성되는 모습과 송도국제도시가 매립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이 그와 송도의 첫만남이다. 그는 그때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바다 아래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송도국제도시는
봐도 봐도
정말 끝내주는
지리적 위치에 있구나!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교류와 교역의 통로를 석권하는 자,
곧, 경제의 바다를 석권하는 자가 세계를
석권할 것이다.



예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한반도의 지형을 아시아 대륙을 움켜쥐고
포효하는 호랑이의 형상에 비유하곤 했는데 경이롭게도
송도는 호랑이 형상의 정 중앙인 배꼽에 위치하고 있다.



그야 배꼽은
생명의 원천이니
핵심을 뜻하겠지!

배꼽이
상징하는 게
뭔가요?

중국과 한국은 정말
숙명적인 이웃사촌이야!
우의 있게 더욱 잘 지내자구!

중국과 한국은
수 천 년 간 교역과 교류를
멈추지 않고 역사발전을
함께 해 했는데 앞으로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긴밀해질
수밖에 없죠.

2003년 8월에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 1호로
선정 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즉, IFEZ가 송도에 웅지(雄志)를
틀고 새롭고 찬연한 동북아
경제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 아니겠냐구!

라틴어로
‘배꼽’을 ‘옴파로스’라
지칭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호랑이 형상인 한반도
중심에 송도가 정확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놀랍고도 놀라운
선조들의 ‘선견지명’의
구현일세!

앗! 그리고 보니
바로 송도가
동북아시아의
옴파로스로구나!

드디어 동북아시아에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던
동북아시아 경제의 바다시대가
도래한 거로구나!

교역과 교역로의
첨단화, 다양화,
세계화, 집중화
라고나 할까요?

으~~무섭고도
부럽스므니다...

오늘날 송도국제도시는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며
'초국경적 도시인 메타시티(Meta-city)*'로 비상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옴파로스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송도의 지형적, 역사적 숙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알고보니 IFEZ의
송도국제도시는
세계인의 꿈과 행복이
어우러진 창조의
경제바다
그 자체로구나!

세계경제의 바다,
그것의 중심이
동북아시아이고
송도국제도시라니
한마디로 감격이야!

하!~~
바다와 하늘과 땅의
경제바다가 한 눈에
환하게 잘 보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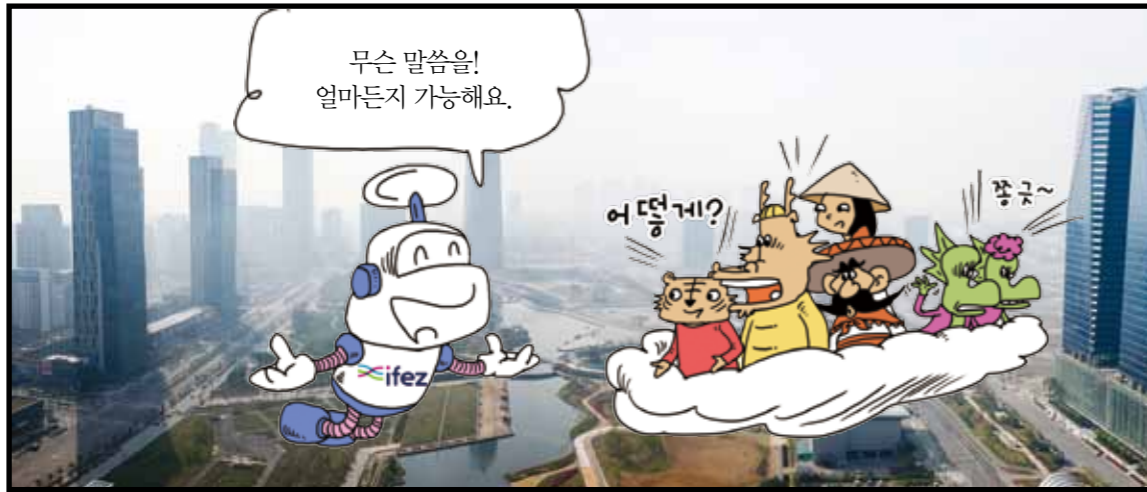
송도가 대세인 건
하늘의 뜻일진데
그 누가 막을소냐!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며
하늘바다 길을 활짝 열어

세계와 IFEZ를
하나되게 하는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하고 있지요.

한반도의 배꼽인 송도국제도시는
한마디로 동북아시아 경제바다의 옴파로스이고
금융, 경제, 산업, 문화, 콘텐츠의 메카입니다.

* 메타시티(Meta-City) 첨단정보통신망과 국제고속교통망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인근 국가의 대도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경제활동을 공유하는 초국경도시.





* 송도국제도시 워터 프런트[Water Front]는 전통적 장점인 항만, 운송,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을 통해 레저, 문화상업 등과 새로운 첨단 기능을 더하고 넓은 면적의 개방적 공간의, 확보하여 과밀하고 폐쇄된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도시민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도시 속의 자연을 구현한다.

* 백문불여일견[百問不如一見] 말로만 백 번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실제로 경험해야 확실히 안다는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세계적 랜드마크 워터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IFEZI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9월 1일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시아 옴파로스로 만들기 위해 국제업무, 첨단산업과 해양레저, 문화,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서비스산업 거점의 명품 워터 시티로 조성하는 다음 내용의 워터프런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총 6,8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되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는 5종류의 권역별 테마로 조성된다.



- ## 1. Yellow Sunset Lake _ 송도 워터프런트의 중심공간

- 송도 워터프런트 관광의 거점공간으로 개발
- 송도 랜드마크시티, 국제업무지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수변경관 창출

2. Mini Canal International _ 물과 가까운 고품격 문화쉼터

- 물과 접하는 주거환경을 가진 고품격 수변 주거단지 조성
- 예술, 축제, 문화가 함께하는 수변공간 조성
- 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워터프런트 윈도우

3. Aham Family River _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가족공원

- 다양한 워터프런트 레저공간 조성
- 가족이용 중심의 수변 레포츠공원 조성
- 송도습지 및 아암도의 장소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4. Birds Eco Town_자연 생태를 배려하는 자연친화형 수변공간

- 송도습지 및 희귀 조류 서식지의 보전과 복원
- 인간 활동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공간 조성
- 송도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시설 확보

5. South Marine Lane_창조적인 해양문화 체험공간

- 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의 종합적 체험 공간 조성
- 대학교 및 산업단지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간 조성
- 공원·녹지 및 보행로의 네트워크 구축



**IFEZ를 대표하는
주요 시설들**

1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인재 집결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송도의 국제도시로서의 성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UN기구,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13개의 국제기구들이 입주한 국제건물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세계적 수준의 업무용 빌딩 등 비즈니스 업무에 최적화된 국제업무단지 구축으로 나타난다.

송도국제도시의 국제 비즈니스이자 다양한 문화가 시작되는 G-Tower를 중심으로 한국 최고 층 건물이면서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NEATT 동북아무역타워가 대표적이다. 동북아 허브도시로 도약할 인천의 주요 비즈니스가 집약된 이곳들은 세계와 인천의 접점, 한국 비즈니스의 접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접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스타이너(Christopher Steiner)는 자신의 저서 <석유종말시계>에서 '송도국제도시야말로 현대형 도시의 정답이요, 가장 효율적이고 철저히 기획된 도시로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는 도시'라고 적고있다.



G-Tower

파리의 개선문처럼
세계로 향하는
길의 중심에 서다

파리에는 에펠탑이,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 도시를 상징한다면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은 단연코 G-Tower다.

파리의 개선문을 중심으로 뻗어 나오는 방사형 도로의 형태를 모방하여 만든 송도국제도시 도로망의 중심에는 G-Tower가 있다. 이곳의 입구와 1층에는 다양한 나라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데, 이는 이 건물이 송도국제도시이자 인천경제자유구역지구의 국제적 상징이며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기구 전용빌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G-Tower는 타워동(청사동), 민원동, 문화동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된 세 개의 건물은 각각의 1층 로비를 통해 연결되는 열린 공간으로 각 건물간 이동이 매우 쉬운 구조다. 이는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융합하는 국제건물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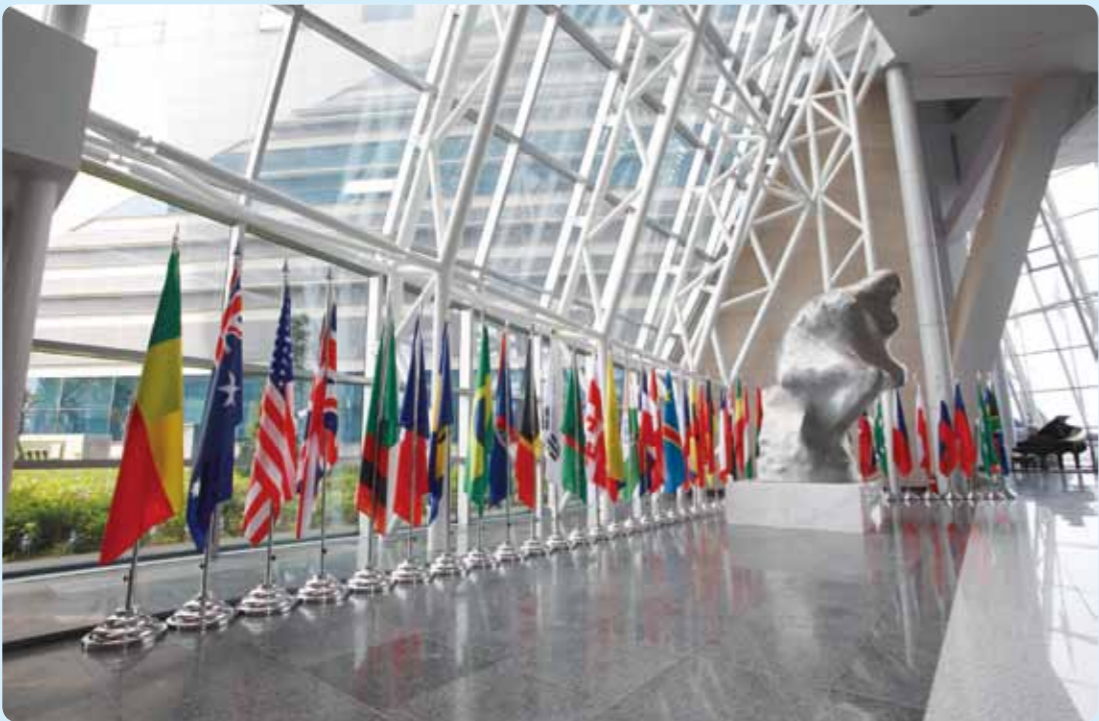
세련된 타원형의 본동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UN기구들이 입주해있으며 2개의 부속 동에는 각종 문화관련 시설과 은행 등 편의시설들이 국제업무에 편리한 최신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1층 로비와 외부 공간에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우수한 문화예술의 향취를 선사하고 있다.

G-Tower는 세계인이 즐겁게 어우러져 긍정적인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이며 중심이다.

TIP

G-Tower 국제기구 현황



- 유엔 아태정보통신원(UN APCICT),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 ESCAP) / 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NEASPEC),
-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아태사무소(UN CITRAL),
-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소(EAAFP),
-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 국제방재연수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GCF Secretariat),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 UN 기탁 도서관.



곳곳에 정원을 담은 건물에서
자연과 도시, 세계와의 공존을 읽다

오픈 된 삼각형 구조의 역경사 모양으로 건물의 최상층이 하늘을 향해 다이내믹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G-Tower 29층의 하늘정원이다. 옥상 정원인 이곳은 건물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개방되어있어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의 역동성을 상징한다. 건물 속 자연을 상징하는 이곳이 서해안을 향해 포효하는 건물의 입이 된 것은 매우 드라마틱한 일이다. 이 포효는 결코 공격적인 것이 아니며 경제활동과 서비스, 세계를 주도하는 스마트 시티 개발 등 우호적인 방법을 통해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서해안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세계를 향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의 비전과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상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있다.

TIP

G-Tower의 예술작품

G-Tower 본관 1층 콩코스 홀 천장에서는 매달린 나뭇가지를 볼 수 있다. 쓰나미에 밀려온 나뭇가지들을 모아 새등지로 만든 작품으로, G-Tower에 입주한 녹색기후기금(GCF)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이 지구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자연이 내리는 재앙인 쓰나미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각국의 국기 앞에 자리잡고 있는 조각물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형상화 했다. 그는 거기에 앉아 세계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가 놓여있는 곳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사이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있는 빌딩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G-Tower 외부에는 피아노 작품과 나팔 작품이 있다. 피아노는 사랑하는 두 연인이 같이 연주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캐릭터이고 나팔은 신에게 자신의 소망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바닷가라는 송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TIP

송도의 3대 명품 바람, 공원, 축제



바람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가진 도시에는 언제나 서해의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불며 바다냄새와 함께 이국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곳의 바람은 말을 거는 것처럼 상냥하며 때로는 야단치는 것처럼 거칠다. 송도의 5대 골바람 중 하나인 G-tower 후정(後庭)에서 만나는 바람은 서해와 송도국제도시를 어우르는 바람이다. 이곳을 찾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이 바람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바람이기도 하다.

NEATT 타워와 컨벤시아 사이에 부는 바람은 산업과 무역,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부는 '이어줄'의 바람이다. 다른 것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힘으로 그들 사이의 차이를 사라지게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이 밖에 24호 공원, 커널워크 봄, 여름, 가을, 겨울 동 사이의 통로에 부는 바람과 센트럴파크역과 트라이볼 주변에 부는 바람은 송도를 이야기하는 바람이다. 이곳에 서서 4계절의 바람을 맞아본 사람이라면, 송도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바람, 차이를 없애주는 바람, 내가 서있는 곳을 알려주는 바람이며 자연 그대로의 바람,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공원

송도의 사계절은 아름답다. 송도의 사람들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의 자연을 통해 가장 먼저 계절과 만난다. 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 나무와 꽃, 조형물들이 있는 공원에서 사람들은 하루를 숨 쉬며, 즐기고 느낀다. 그 자신이 태어난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송도는 자연을 사랑한다. 그래서 송도는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연과 친해지기를 바란다.

센트럴 공원은 도심 중심을 가로지르는 수로를 주제로 하는 해수공원이다. 수상택시가 다니고 있으며 산책, 자연학습 등 여러 주제로 구성되어 도시 생활에 즐거움을 제공한다. 송도의 정보 도시적 성격을 상징하는 현대적 조형물과 음악 분수로 꾸며진 해돋이 공원은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미추홀 공원은 인천의 8경을 전통 문화 예술을 통해 해석한다는 주제로 구성되어 한국 전통의 문화로 가득 차있는 예술공원이다. 현대화된 도시 속에서 전통의 편안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새아침공원에는 건강하게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하며 달빛공원에는 꿈과 낭만이 가득하다. 이 외에도 송도의 건물의 안과 바깥에 있는 공원들은 도시 생활에 여유와 휴식을 주는 곳으로 송도의 365일을 시시각각 다채롭고 여유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축제

송도는 고요한 곳이 아니다. 1년내내 활기와 즐거움, 새로움으로 가득 차있다. 다양한 주제의 축제가 사람들을 모은다. 송도를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즐긴다. 도시는 별처럼 반짝이며 자신을 음악으로 채우고 사람들을 춤추게 한다. 송도의 축제는 그래서 특별하다. 모든 것이 모여있는 원스탑 시티의 축제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흥겹게 이동하며 도시를 즐기게 한다. 맛있는 식사와 볼거리, 화려한 야경, 시원한 바람, 풍요로운 자연이 함께하는 축제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바람, 공원, 축제는 송도를 대표하는 3가지 주제다. 송도 어디서나 불어오는 바람은 서해의 그리움을 담아 보내며 공원들은 이곳을 사람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든다. 이 모든 것들과 문화, 예술이 합쳐진 송도의 축제는 세계적 도시의 특별함과 편리함, 독창성을 모든 사람과 나누게 하고 있다.





NEATT 동북아 무역타워

송도국제도시를 밝히는
등대가 되다

송도국제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곳은 캄캄한 바다에서 강렬한 빛으로 배들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다. 송도국제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로 초고층 건축물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벽단면 경사진형상(tapered and tilted shape)으로 디자인되었는데, 여기에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인 곡선을 녹여 만들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아닌 나선형으로 비틀어진 외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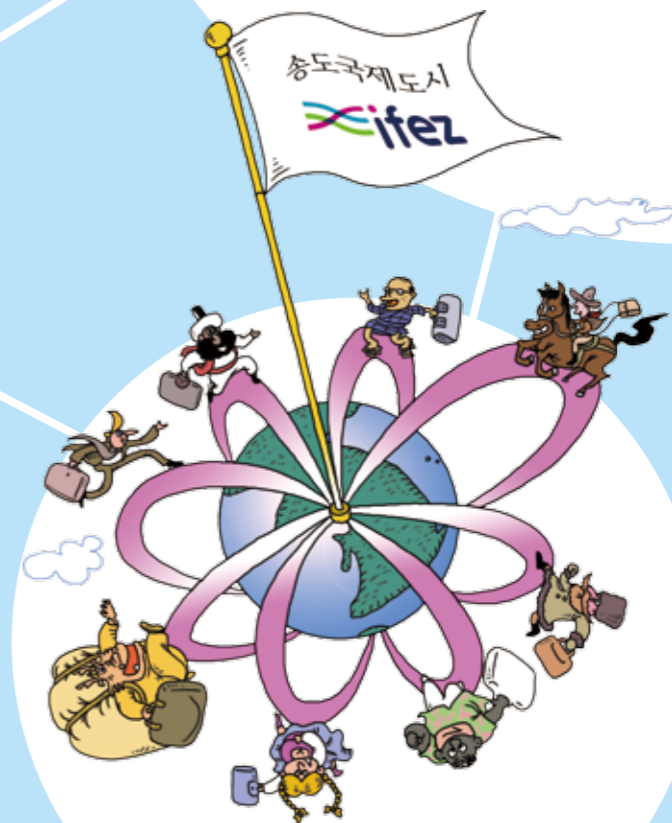
독특한 모양의 다면체로 세련된 곡선과 기울어진 입면, 평평한 입면이 교차하는 등 곡선과 직선이 함께 연출된 이 건물의 형태는 이질적인 동북아 문화를 연결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NEATT의 의지를 표현한다. 앞으로 이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동북아 비즈니스와 문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장소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308m 건축물로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업무용 빌딩이며 업무시설과 함께 상업시설, 호텔식 주거공간(serviced apartment)으로 구성된다. 송도국제도시의 등대이자 랜드마크로 동북아문화를 화합하고 다양성을 두루 끌어 안는 동북아무역센터의 지상 2층은 금융서비스, 3층-8층은 오피스와 편의 및 문화시설, 12층은 공동식당, 9층-11층, 13층-21층은 업무공간으로 대우인터내셔널이 입주하며 22층-31층은 일반오피스로 사용된다. 65층은 전망대, 36층부터 64층까지는 한국 최초의 프리미엄 레지던트 호텔인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이 위치하여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총 423개의 스위트급 레지던트 객실로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며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업무단지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2

창조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거점 도시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단지, 주거 단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활발한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구역들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 및 편리한 생활환경을 배경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포스코 건설과 코오롱 글로벌, 대우인터네셔널 등 80개 글로벌 기업을 유치했으며 셀트리온, 삼성, 동아제약과 같은 대규모 바이오산업의 생산거점을 마련했다.

이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송도국제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증거이며 송도국제업무단지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송도국제도시는 앞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더 다양한 투자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비즈니스 1번지이자 세계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POSCO E&C





글로벌 비즈니스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을 더욱 본격화하기 위해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의 사옥은 지하 5층, 지상 39층 2개 동 규모의 트윈 타워(Twin Tower)로 건설되었다. 정화와 융합을 상징하는 보석인 크리스탈에서 전체적인 형태를 응용하여 디자인된 외부는 스마트하며 정쾌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의 포스코를 상징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송도국제도시 중심에 위치한 건물로서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드러낸다. 건물의 겉모습은 잘 세공된 보석처럼 보는 시간과 각도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며 밤이면 특유의 조명으로 보다 인상적인 푸른 외형을 드러낸다. 트윈 타워 사이의 공간은 이 건물이 송도국제도시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포부를 품고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선도적인 건축물들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포스코이앤씨 타워(Posco e&c Tower)’가 정식명칭이며 각각 사옥과 임대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TIP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와 함께하는 열린 기업, 그래서 POSCO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포항, 광양 제철소를 건설하며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1994년 12월 공식 출범한 종합건설회사 포스코건설은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등 일련의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환경, 에너지 등의 플랜트, 신도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활약으로 단순 시공을 넘어 도시 전체를 아우르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송도국제도시의 도시 계획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송도 컨벤시아, 동북아 무역타워, 센트럴파크 등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부터 주상복합아파트까지 송도국제도시를 만들어오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하다.

포스코 송도사옥은 인천대교와 서해가 한 눈에 들어오는 뛰어난 조망으로 인근에는 산책,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NC큐브의 커널워크, 송도컨벤시아 등 다양한 업무와 상업시설이 위치해있다.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와 다문화 가족, 새터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정착을 돕고 수익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커피 전문점 ‘카페오아시아(cafēOasia)’가 입주해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어반 뷰(Urban View), 오션 뷰(Ocean View)와 함께 건물 내부 중앙공원의 녹지를 통한 그린 뷰(Green View)를 확보하고 있는 건물로 제6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에서 업무용 건축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999년 자동차 회사에서 실직해 '실패한 자동차 회사 임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서정진 회장이 2002년 창립하여 2008년 코스닥에 상장될 만큼 빠른 성장을 보인 셀트리온은 세계 제약업계에서 '아이돌 스타'로 통한다.

셀트리온

세계 제약업계의 '아이돌 스타'

항체 의약품을 좋은 품질로,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여 2002년 송도국제도시 개발초기에 바이오메디파크의 첫 입주기업이 되었던 셀트리온에는 송도 공장 초기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다. 2003년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한 서정진 회장의 차가 넓은 송도 별관에서 길을 잃어 늦을뻔한 일로 진땀을 뺐다는 준공식 담당 임원의 회고담이나 셀트리온 1기 공채 직원들이 처음 사용하던 인천시 건물을 떠나 처음 공장 부지로 이동하던 때, 송도 개발 초기였던 당시 사방으로 갯벌만 보이는 풍경 때문에 새우잡이 어선에 팔려가는 것이 아닌가 겁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웃으며 하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송도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1기 공채 직원들은 회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송도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셀트리온은 한국 내에선 유일하게 바이오시밀러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세계 3위 규모)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셀트리온이 오늘날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송도국제도시의 넓은 부지와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입지여건, 직원들의 노력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삼성 바이로직스

한국의 바이오텍퍼스

바이오테크파크의 또 다른 입주기업인 삼성의 바이로직스는 2013년 6월 3만 리터 규모의 제 1공장을 가동하고 2015년 제 2공장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그룹의 첫 바이오산업 관련 회사인 바이로직스의 제 1공장은 ‘송도 바이오텍퍼스’라고도 불린다. 내부와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디자인의 연구동과 맞춤형 짜임을 바탕으로 한 생산동, 부대동에 친환경 요소를 두루 도입한 조경부로 구성되어 제조와 연구 뿐 아니라 휴식까지 생각한 시설로 평가된다. 외부 조경시설로는 계절나무들을 심어 계절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과의 친화력을 높였다. 현재 개발과 생산을 이원화한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전략에 따라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를 연구, 개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인 바이로직스 2개 업체가 바이오메디파크에 입주해있다.



3

청년벤처산업의 중심 도시



벤처기업은 고도의 전문 능력과 창조적 재능 및 기업가 정신으로 특수한 신규 산업에 도전하는 연구개발형 신규기업을 의미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아시아 등 국제진출이 유리한 송도국제도시로 벤처기업들이 모이고 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벤처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 아래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다. 대학의 기초연구, 공공연구기관의 응용기술연구, 기업연구소의 첨단제품 개발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집적형 테크노파크이자 한국 최대 규모의 산업기술단지다. 고밀도 벤처집적시설과 도시형 공장을 위한 곳으로 기술개발 촉진, 기술거래 및 이전 활성화, 신기술 벤처 창업촉진 등을 목표로 한다.

2005년 준공된 1차 산업기술단지에 독립건물과 연구집적센터 등 55개 연구소가 들어섰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연구센터,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가천의과대학 생명과학연구소, 시험생산동 등 총 158개 기업과 기관이 왕성한 활동 중이다. IT, BT 센터를 시작으로 2013년 조성된 사이언스빌리지는 한국내외의 산학연 연구인력들이 24시간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자 벤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족형 벤처 생태계'다.

테크노파크 단지 내에는 송도국제도시의 첫 번째 랜드마크였던 갯벌타워와 2009년 4월 준공한 미추홀타워, 벤처A, B동 등 송도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6개 주요 건축물이 있으며 이곳에는 IT, BT 등 첨단산업 관련 한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갯벌타워 GET PEARL TOWER

벤처기업이여 진주를 발견하라

송도에는 벤처기업을 위한 많은 지원기관들이 있으며 이를 위한 건물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송도가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지원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도시라는 의미다. 벤처기업 및 관련 공공기업, 연구소 등의 입주목적으로 2004년 7월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로 지어진 갯벌타워는 인천지역 미래 벤처기업의 요람이자 전진기지로 송도에 세워진 초기 건물이다. 이곳에는 과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전시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21(IFEZ VISION 21)'이 개관되어 최초로 송도로 알리는 홍보 건물이기도 했다. 수많은 벤처기업, 예비창업자들이 태어나고 키워져 대한민국의 부를 창조한다는 인천테크노파크의 포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갯벌타워(Get Pearl Tower)라는 이 건물의 이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당선된 명칭으로 친환경적이며 생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갯벌 위에 세워진 건물’, ‘갯벌이 보이는 건물’이라는 의미 속에는 ‘갯벌에서 어패류 등이 생명의 불꽃을 이어가듯 벤처기업들이 탄생되어 인천의 경제를 일구어 나간다’는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바다를 메워 조성된 부지에 건립되었으므로 갯벌에서 진주를 캐는 것처럼 많은 벤처인들이 이곳에서 성공신화를 만들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정식 영문 명칭은 ‘진주를 캐는 곳 (Tower to Get Pearl)’으로, 진주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몰두하는 기업인들의 기상과 이러한 벤처활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건물이란 의미도 함께한다. 건물은 미래지향적이고 하이테크한 벤처산업의 이미지를 돋보이기 위하여 샌드위치 같은 형태의 커튼월로

마감되었다. 모자이크를 보는 것 같은 외부의 벽은 주진입에 따라 변형되는 건물의 방향성을 만들고 입체감을 부여한다. 3~5층에는 시험생산연구소와 바이오지원센터, 7층에는 생물산업실용화센터, 12~13층에는 선박검사협회, 15층에는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16층 한국표준협회, 17층 인천시용보증재단 등이 각각 들어섰다. 이 기관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8~11층은 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이며 20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되어 있다. 1~2층은 전시실, 회의실, 교육실, 다목적홀, 국제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매점, 약국,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상·중·하층부에 있는 옥상정원은 24시간 운영되는 벤처빌딩으로의 기능과 입주자들의 편의를 배려한 작은 휴식공간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추홀 타워 MEET YOU ALL

꿈을 가진 당신들
모두 모여 만나다

이곳 근처에선 언제나 활기와 젊음이 느껴진다.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에서 경영지원에 이르는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어진 지하 2층 지상 21층 규모의 이 건물은 2009년 2월 준공되었다. 송도에 지어진 최초의 가장 높은 건물로 예전에는 송도의 랜드마크였다. 별관 A동(지하 1층 지상 6층), B동(지상 6층)으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지원기관들이 입주해있다. 초현대식 건물로 수려한 외관, 쾌적한 사무공간, 깔끔한 내부시설 등으로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미추홀 타워는 'Meet-You-All'로 표기되며 'Tower to meet you all', '당신들 모두를 만나는 곳'으로 '학문을 닦고 기술을 개발하는 당신들 모두를 만나는 곳'이란 의미를 가지며 곧, 세계인 모두가 만나는 곳이란 의미로 확장된다. 백제초 고구려로 남하한 비류가 미추홀(현재 인천)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미추홀타워에서 첨단 산업 기지가 새롭게 구축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 기술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고 '인천의 기술력을 세계로' 도약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큰 뜻을 담고 있다.

마름모 모양과 배 모양의 건물로 구성된 미추홀타워는 인천테크노파크의 인천바이오산업지원센터와 함께 바이오산업 관련기업들이 입주해있는 별관 B동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불리며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이는 세련된 외층의 건물로 (재)인천테크로파크가 입주해있는 미추홀 본관으로 나뉘어 있다.

4

살기 좋은 글로벌 이웃들의 도시



사람, 상품, 자본이 모여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송도국제도시가 준비한 주거의 모습은 세계화에 걸맞게 최첨단이며 자연친화적이다. 비즈니스 지역에 건설된 오피스텔 등과 함께 더샵퍼스트월드, 센트럴파크 등의 주거전문 시설은 최적의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Compact & Smart City 특징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예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의 주거형 건물들의 구조는 한국 전통의 궁인 비원의 구역 비율을 본뜬 것으로 각각의 구성은 한국의 전통 커뮤니티 개념인 마을(MA-UL), 동네(DONG-NE), 이웃(YI-WOOT)을 컨셉으로 하여 공동체 개념을 살렸다. 각각의 건물들이 서로 연계하여 소통과 협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롭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환경, 교육, 쇼핑, 공원, 편의시설 등 정주 환경이 효율적으로 갖춰져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설계로 높은 만족도와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송도국제도시의 주거시설을 통해 세계가 만족하는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들여다 보자.



더샵 퍼스트월드

감정을 가진 집
도심 속
자연의 공간에 살다

송도의 중심 아파트인 이곳은 송도국제도시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센트럴파크 공원, G-Tower, NEATT동북아무역타워, NC큐브 등에서 가깝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형태가 골고루 섞여 있으며 근처엔 잘 발달된 상점가가 위치해있어 언제든지 편리한 쇼핑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아름답게 꾸며진 조경과 조형물들, 세련된 건축형태는 도시 속에 전원을 완성한 것 같은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아파트에 인간미가 결합되어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송도의 아파트들은 사람과 자연이 건물과 함께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문화 공간으로 곳곳에서 여유와 쉼, 소통이 느껴지는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샵퍼스트월드는 64층 규모의 타워형 건물 4개 동과 판상형 8개 동으로 구성된 주거시설이다. 64층 초고층 아파트 4개를 중심으로 사이마다 26층 아파트 2개와 7~22층 오피스텔 6개가 조화를 이루며 들어서있다. 국제적 수준의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로 아름답게 빛을 반사하는 외관은 한국 전통의 담장인 서울의 덕수궁 담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단지 외곽으로는 상점가가 위치해있고 단지 내 중수 시스템, 중앙수로, 쓰레기 중앙집하 시스템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거단지로도 유명하다. 2005 미국건축가협회(AIA) 뉴욕주 주거설계상을 수상했다.

이 단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아름다운 조화다. 아파트의 표면은 한국 전통 담장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블록처럼 서로 교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리 외벽도 전통 한옥의 형태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처럼 구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높은 주거편의성까지 가지고 있다. 약 300여 개의 상점들이 아파트 내 외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다목적실과 64층의 연회장, 입주인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룸,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가정마다 설치된 측정기기를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연계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는 U-헬스케어(U-healthcare) 시스템과 622대의 CCTV를 통한 통합보안시스템 등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도 도입되어 있다.



센트럴파크 I

사람과 자연,
도시를 담은 바구니에 살다

송도 국제도시의 해수공원 센트럴파크를 둘러싸고 있는 주상복합 더샵 센트럴파크 I은 지상 47층의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바다에 인접한 대지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한국의 전통 ‘바구니’와 ‘파도’를 형상화해 만든 물결무늬 디자인으로 전체 외관에 율동적인 느낌의 통일감과 변화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체크무늬를 연상시키는 이 설계는 햇살의 반사 각도에 따라 건물의 입체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여 송도국제도시의 풍경에 독특한 특징을 더하고 있다.





센트럴파크 II

자연의 리듬에
울동하는 건물을 느끼다

송도 국제도시의 해수공원 센트럴파크를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주상복합 더샵 센트럴파크 II는 지상 49층의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에 움직이는 대나무 가지를 형상화한 ‘댄싱타워(Dancing Tower)’ 디자인으로, 멀리서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 외관이 인상적인 건축물이다. 정적인 도시에 리듬감 넘치는 풍경을 연출한다.

5

활발한 서비스산업이 삶과 연계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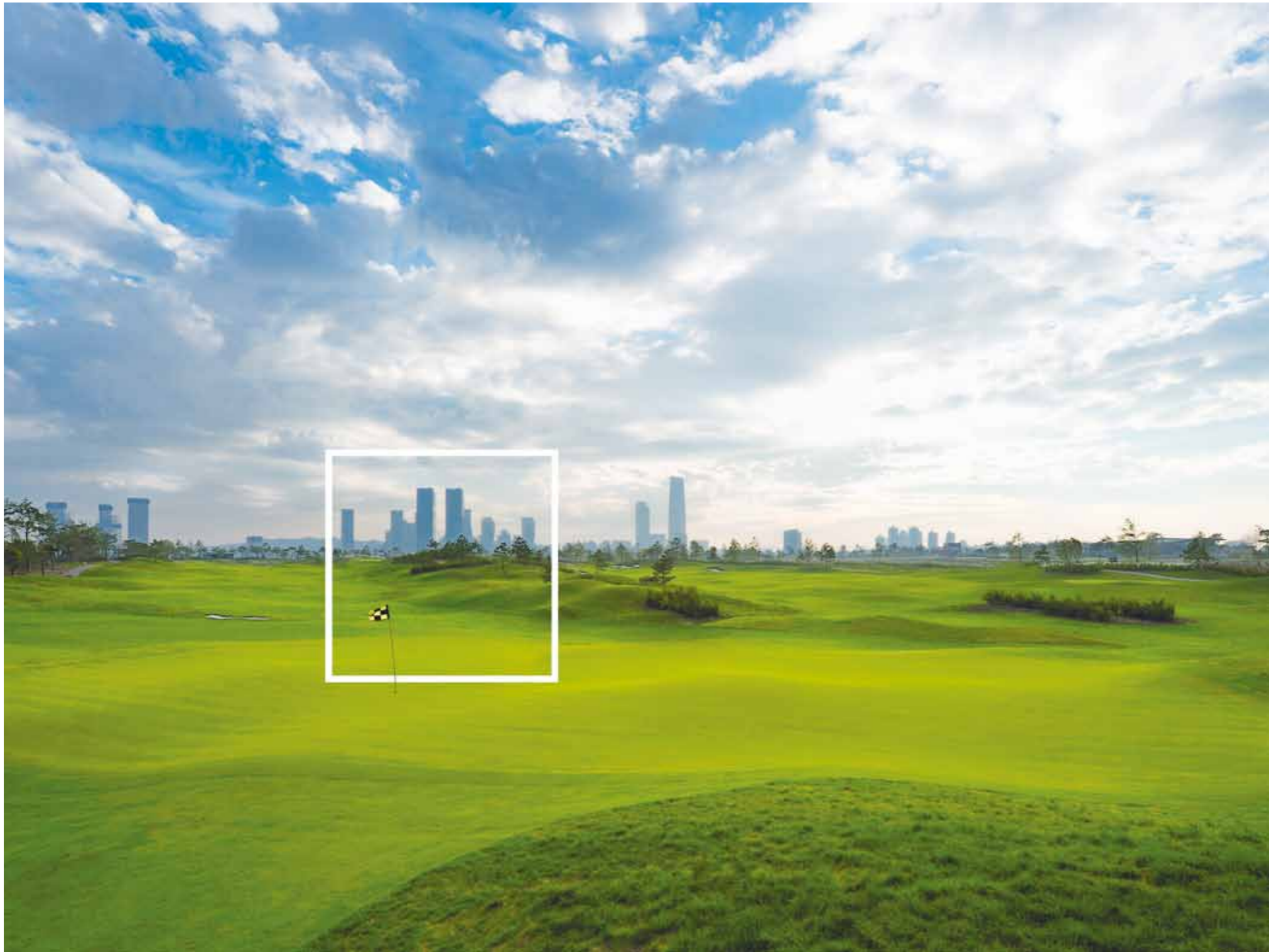
송도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속 가능 개발도시다. 여러 종류의 주거용 건물과 상가, 학교뿐 아니라 건강관리 시설, 쇼핑, 외식,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편안한 삶을 위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허브화된 서비스산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레저 / 스포츠 시설, 쇼핑센터인 잭 니콜라우스 골프클럽과 NC큐브는 주거시설, 비즈니스 시설과의 빠른 연결성을 가지며 디자인과 서비스면에서 독특하고 뛰어나다.

잭 니콜라우스 골프클럽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레저를 위한 시설로 전 세계 25개의 잭 니콜라우스 시그너처 골프코스만이 달고있는 '잭 니콜라우스'의 이름을 단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골프클럽이며, NC큐브는 야외형 오픈몰로 쇼핑, 문화, 맛집을 한 번에 즐기는 복합 쇼핑몰이다.

이 밖에 송도국제업무단지에는 송도 센트럴파크 I, II의 대표 상업시설인 센트럴파크몰, 밀레니엄, 드림씨티 등 주거 및 비즈니스 환경과 밀접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업시설 및 호텔이 있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도심형 프리미엄 골프의
다이나믹한
모험에 매료되다

송도에 골프클럽이 생긴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많았다. 그리고 완성된 골프클럽은 그 기대를 넘는 것이었다. 도시, 자연,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골프를 즐긴다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이 골프클럽의 각 코스는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양하게 설계되어 어디서건 화려하고 세련된 송도의 도시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규격에 맞는 훌륭한 시설로 다양한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골프클럽이 가까운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꽤 흥미진진한 일임에 틀림없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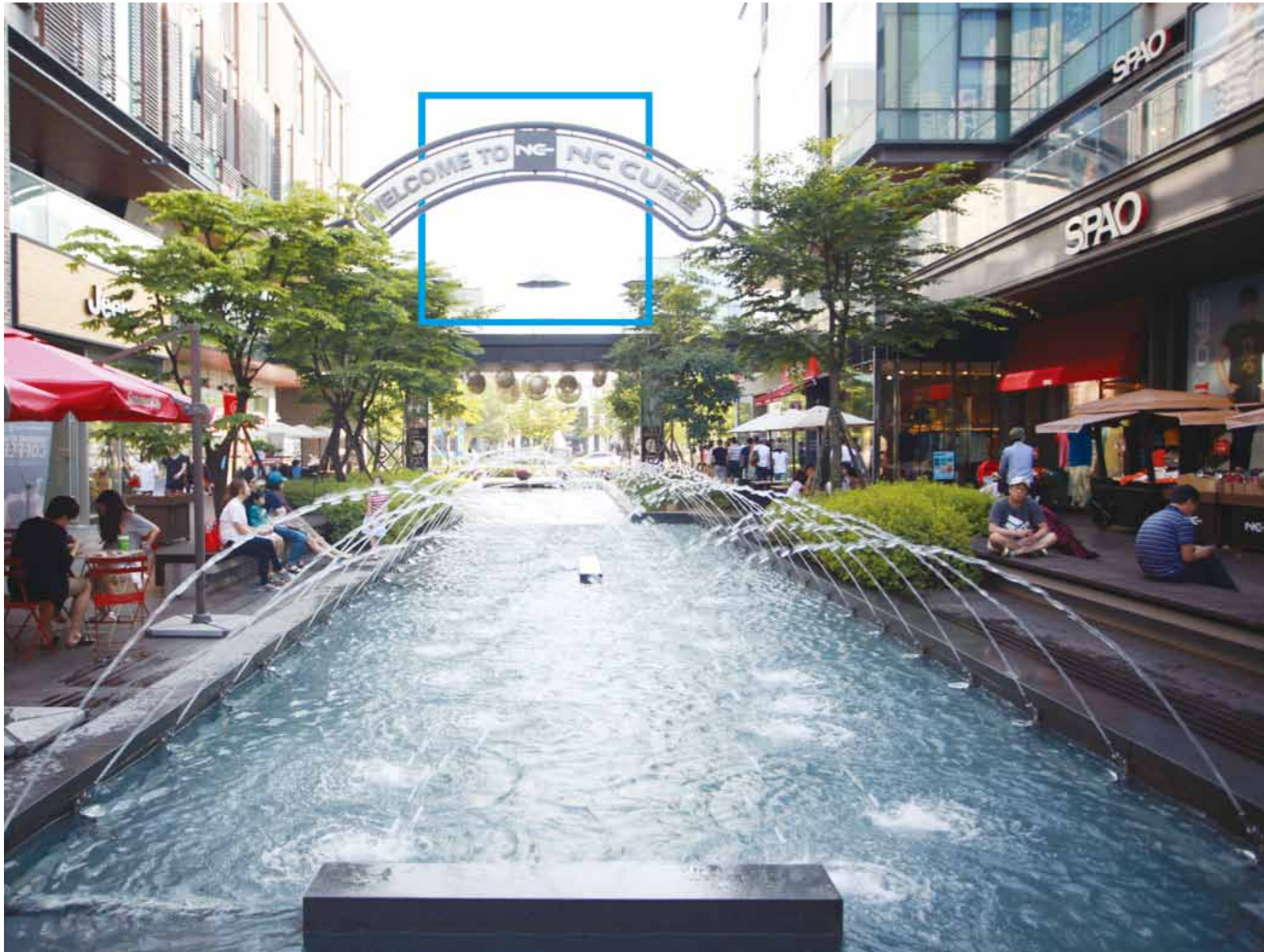


‘도심 속 자연’을 주제로 PGA 국제투어 기준에 의해 설계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며 자연과 도시를 향해 열린 오픈 스페이스로 설계되어 2011년 인천광역시로부터 일반부문 건축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PGA 챔피언투어를 개최할 정도로 완벽하고 다이내믹한 코스 디자인을 자랑한다. 2015년에 10월에는 세계적인 명문 대회인 프제지던츠컵 개최이 된다. 이 대회는 미국 ESPN으로 전세계에 생중계되며 비영어권국가가 개최하는 것은 최초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입지에 최고 시설의 국제학교와 대규모 상가, 문화 레저 공간, 고급 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져있어 글로벌 비즈니스와 골프를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코스 설계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골퍼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잭 니클라우스는 ‘내가 만든 코스에서 치고 나면 언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싶다’는 철학을 가지고 설계에 임한다고 한다. 이런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는 비즈니스와 골프라이프 스타일을 조화시킨 골프장으로서 송도국제도시의 아름다운 마천루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한국 최대 규모 최초의 도심형 골프장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NC큐브

수로변상가의 사계절 이야기에 빠지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이곳은 수로를 중심으로 양 옆에 건물이 세워진 스트리트형 건축물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링족을 위한 유럽식 저층형 대형쇼핑몰로 수로를 의미하는 커널(Canal)을 함께 걷는다는 의미의 커널워크(Canal walk)라고도 불린다. 사람, 자연, 도시가 함께 어울리는 곳, 함께 걸으면 좋은 곳, 걸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테마가 있는 곳, 4계절 축제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란 주제로 구성되었다.



폭 5m, 길이 800m의 인공수로 이 아름다운 유럽풍
 쇼핑가가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사람을 쉬게 하는
 물'이다. 사람을 불러 평온하게 하는 물은 사람을 당기
 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
 다. 물을 테마로 건설된 NC큐브는 세계적인 비즈니
 스 인프라를 갖춘 송도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쇼핑과
 오피스텔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곳으로, 이곳의 노
 천카페에는 도시생활의 낭만과 산책길의 즐거움, 쇼
 핑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및 휴식 시설이
 설치되어있다. 좌우 건물의 1-2층은 상가, 3-5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문화와 쇼핑, 테마가 함께하는
 공간이며 쾌적한 업무시설로도 부족함이 없다.
 NC큐브 각 동의 입구는 출입을 위한 개념에서 벗어
 나 사람과 사람, 도시와 사람,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
 는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블록들
 은 각각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다른 형태와 마감재로
 디자인되어 서있고 그 안의 건물은 이들은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봄동은 패션/잡화/리빙, 외식, 병원/서적/네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여름동은 여성/잡화, 아동, 외식으로,
 가을동은 캐주얼/잡화/화장품, 외식, 고객상담실/수
 선실/은행으로, 겨울동은 스포츠/아웃도어, 외식, 지
 원사무실/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동들은 모두
 아름다운 외관과 이국적인 풍경으로 많은 TV드라마
 와 CF의 배경으로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6

삶과 교육이 가까운 국제교육 도시



글로벌 교육특구로 알려진 송도국제도시의 쾌적한 교육환경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교육 시설들로 유명하다.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즐겁게 활동하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채드윅국제학교와 외국 유명 대학들의 수업을 듣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송도글로벌캠퍼스,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등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교육환경이다.

이 밖에도 2011년에는 총 2만 여권의 장서를 갖춘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여 송도 학생들에게 책 읽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새아침공원의 생태교육관에서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전에 살펴본 송도국제도시의 질 높은 거주환경, 생활 환경과 함께 마련된 양질의 교육 환경은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채드윅 국제학교

경험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적인 교육을
체험하다

채드윅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12학년 정규과 정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독립 사립 교육기관이다. 이곳의 교육이 남다른 이유는 인성과 체력, 지능을 두루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즐기며 하는 공부가 가능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교육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 국제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채드윅 국제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명 미만으로 효과적인 그룹별, 개별지도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공동체 의식, 사회성, 협동능력 등의 커뮤니티 개념을 배우며 채드윅 스쿨의 교사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된 다양한 국가의 교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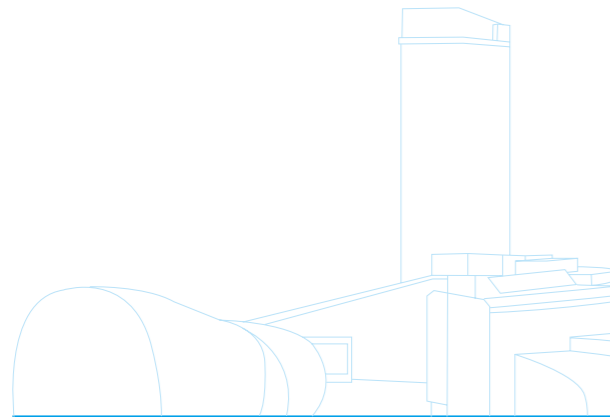


빛에 따라 독특한 에메랄드 빛깔을 내는 학교 건물이 작은 대학교 캠퍼스를 연상시키며 서있다. 전통 한옥의 미를 반영한 ‘ㄷ’자 구조로 곳곳에 있는 정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누리기에 좋은 곳이다.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어 지어졌으며 정적이며 선적인 구조로 송도국제도시의 학교 건물로선 한국 최초로 LEED 인증을 받았다. 체육, 미술, 음악, 공연예술 등 예체능 활동을 중요한 소통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스쿠버다이빙 수업이 가능한 5m 깊이의 아쿠아틱스 센터, 15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700명 규모의 8개의 대극장, 채널 프로덕션이 가능한 스튜디오, 전 세계 학생들과 협업할 수 있는 2개의 시스코 텔레-프레스룸, 놀고 쉬고 떠들며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등 아이들을 배려한 최첨단 최상급 수준의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위 프로그램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국제학교 인증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로 IB의 초등교육 과정인 PYP의 예비인증을 획득하고 한국내 학력인증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며 6월에 학기가 종료되고 9월에 시작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종합적인 영어교육(ELS,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국 본교인 채드윅 스쿨 학생들과 고해상도 화상 시스템인 시스코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를 활용하여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두 학교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아이들이 폭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국 및 해외의 역사 및 문화유적, 엑스포 등 현장체험학습도 함께 진행된다.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지식, 문화, 교육이 모여
세계 명문 대학의
확장 캠퍼스를 이룬다





TIP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글로벌 대학들

2010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개 대학 중 78위를 차지한 미국의 명문사학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의 글로벌 캠퍼스인 한국뉴욕주립대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갖추고 미국과 동일한 학사관리체계로 운영된다. 2013년 컴퓨터학과 기술경영 학부과정을 개설하고 금융공학, 기계공학의 대학원 과정으로 매년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숙형 시스템인 레지던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학부생 전원이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여 예절 교육 등으로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글로벌 리더들의 특강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12년 US NEWS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대학교 1위로 평가된 미국 조지메이슨대는 경제학, 경영학, 국제학을 오픈하고 미국과 동일한 교육 커리큘럼 및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3학년이 되면 미국 버지니아주 본교와 송도캠퍼스를 오가며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 프로그램이 개설 된다.

2011년 세계대학평가(AWU)에서 벨기에 1위, 세계 89위의 평가를 받은 유럽의 명문대학교인 겐트대는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 학부를 오픈했다. 각 학과마다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최고급의 실험실습 장비 및 시설이 마련된다. 재학 중 벨기에 본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본교와 동일한 학위가 수여된다.

연구중심의 공립대로 유타주의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미국 유타대도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사회 복지 학사과정 및 공중 보건 석사 과정이 개설한다. 미국 본교에서 우수한 교수진을 파견해 미국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캠퍼스 학부생들은 송도국제도시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1년은 미국 본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대학원생은 2년의 학위과정 중 1년을 미국 본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아시아캠퍼스의 신입생 모집은 한국인 40%, 미국·유럽인 20%, 아시아인 40%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구성해 더 많은 국제적 교류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2년 US NEWS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대학교 1위로 평가된 미국 조지메이슨대는 경제학, 경영학, 국제학을 오픈하고 미국과 동일한 교육 커리큘럼 및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3학년이 되면 미국 버지니아주 본교와 송도캠퍼스를 오가며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 프로그램이 개설 된다.

이 캠퍼스는 2012년 7월, 송도국제도시 전체의 건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연계성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처하는 유연성, 과학기술집적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최적화된 실용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 완성되었다. 1단계 1공구에 완성된 시설은 크게 강의동(강의실,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입주대학 도서관), 지원센터, 학생회관, 글로벌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경험하며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규모의 기숙사 및 교수 아파트로 나뉜다. 학생지원시설로 구성된 2공구는 다양한 즐거움과 재미가 함께하는 캠퍼스 생활을 위한 대강당, 도서관, 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대학캠퍼스의 1단계 시설들은 총 5,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특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도입되어있다. 캠퍼스 중앙의 선큰 광장을 중심으로 도서관, 강당, 체육관, 학생회관 등 각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시설 및 각종 복합문화시설이 제공된다. 원형 메스식 설계로 캠퍼스 어디서든 손쉬운 접근성과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7

물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을 닮은 도시

사람이 머물고 싶고 오고 싶은 송도국제도시의 Green-City 조성은 건설되는 건물들의 친환경적인 구조 및 설계 이외에 도심에 만드는 친환경 녹지들로도 알 수 있다. 전국 녹지율 1위를 자랑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친환경 공원들은 한국 최초 해수공원인 센트럴파크와 미추홀, 해돋이 공원으로 대표되며 이 밖에도 새아침공원, 달빛공원, 신송공원, 솔찬공원 등 차별화된 테마와 특성을 가진 약 19개의 공원이 있다. 이렇게 많은 공원을 가진 도시는 한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물과 친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공 해변, 마리나, 유람선, 수변 마켓플레이스 등을 설치하고 바다, 호수, 녹지와 연계한 건축물들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국 그린빌딩협회의회로부터 'LEED-ND(친환경 개발을 위한 에너지 환경디자인 리더십)'인증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도 선정되었다. 송도컨벤시아, 더샵 센트럴파크 I, II, 채드윅국제학교 등 다양한 친환경 건물이 국제적 권위를 가진 친환경 건축물 등급 시스템 'LEED-NC'를 획득하여 다른 곳에 비해 30%나 적은 에너지로 운영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센트럴파크 공원

자연을 향해
열린 도시공원,
바다를 기억하는
도시를 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첨단업무지구와 주거단지 한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이 공원은 이곳이 오래 전 바다이자 갯벌이었음을 기억하듯 한국 최초로 바닷물을 끌어 들여 조성한 해수공원이다. 1.8km의 길이에 12m~110m의 폭으로 만들어진 공원 내부의 수로는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아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으며 수로를 중심으로 다이나믹한 공간을 연출하는 ‘산책공원’, 마당이라는 한국의 전통을 적용해 만든 ‘테라스정원’, 인공수로 구간으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초지원’ 등 5개의 테마로 조성된 공원이 있다. 송도국제도시 사람들은 휴식시간에는 이곳을 보며 자연과 만나고 주말에는 이곳에 나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을 즐긴다.



이 공원에는 9경이라 부르는 9가지 유명한 경치가 있는데, 수상택시에서 바라보는 경관, 흐드러지게 핀 철쭉 동산, 전통문화가 피어나는 한옥마을, 공원 내 호수교에서 바라보는 석양,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바비큐장, G-Tower와 마주치는 곳에 위치한 구조물 지구촌의 얼굴, 바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역새밭, 한가로이 풀을 뜯는 꽃사슴, 공원 내 정자인 송하정의 아름다운 달빛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이 장소를 찾아 공원의 경치를 즐기며 사진을 찍는 등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기록해 간다.

해수로 만들어진 수로에는 꽃게와 망둥어가 자체 서식하며 송어, 우럭을 방생했다. 카누, 워커베이, 수상택시 등 수상체험을 할 수 있는 보트하우스에는 휴식을 위한 카페테리아가 있어 방문객이 주변 경치를 즐기며 쉴 수 있도록 하고 총 길이 9.4km의 자전거도로와 꽃사슴, 토끼섬 등 동물이 있는 동물서식공간과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을 오가는 수상택시는 트라이볼, 동북아무역타워, G-Tower 등 송도의 주요 랜드마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운행하며 사람들에게 송도국제도시를 소개하고 있다. 미추홀 1호-3호까지 총 3대의 수상택시가 센트럴파크 내 웨스트보트하우스에서 출발해 토끼섬 부근에서 회항하는 코스를 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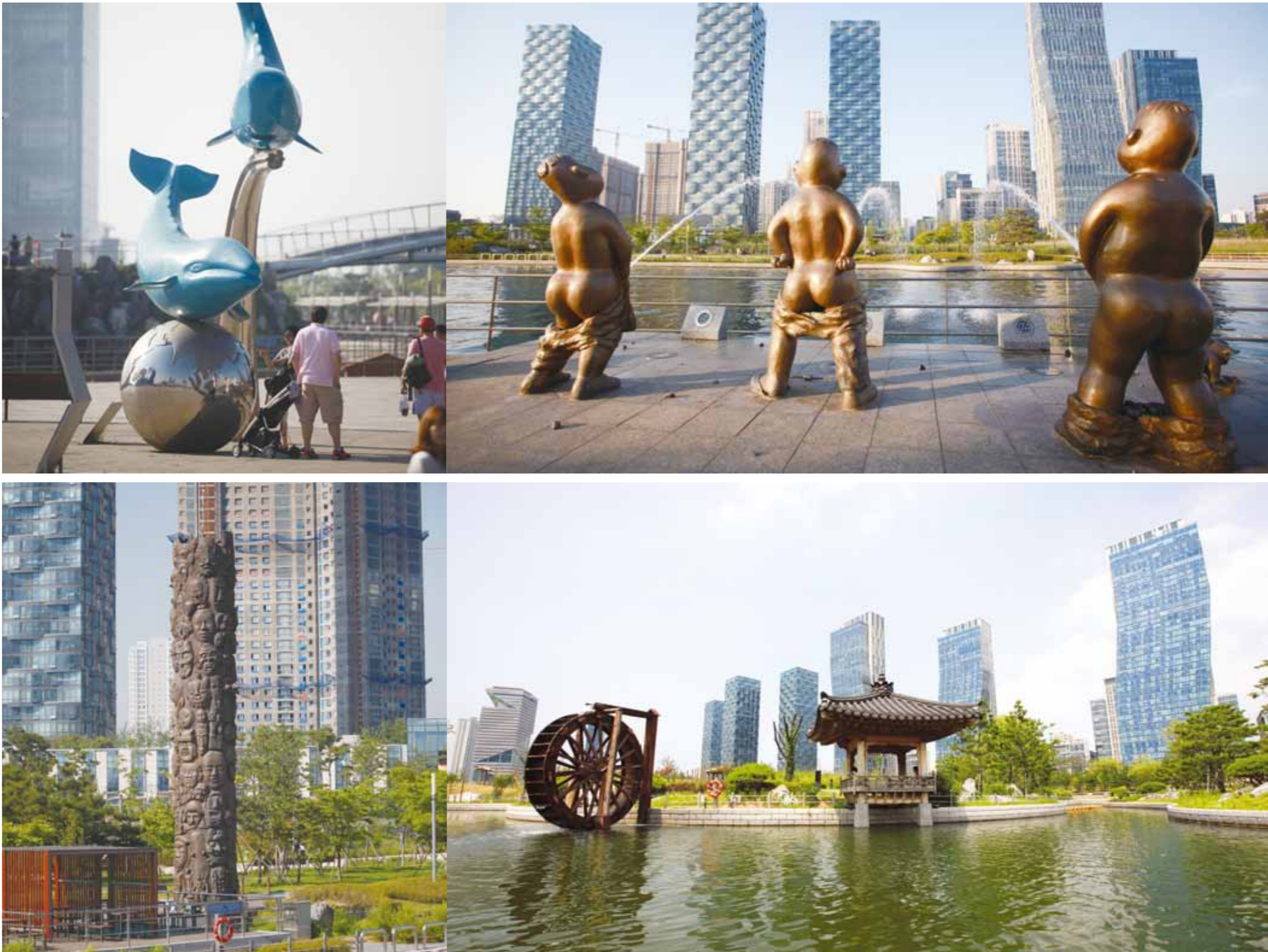
센트럴파크의 여러 가지 예술작품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G-Tower가 가까운 곳에 있는 ‘지구촌의 얼굴’이란 작품은 세계 120여 나라의 탈형상을 모아 만든 조형물이다. 세계 각국의 얼굴들은 각각의 표정으로 송도와 G-Tower, 당신을 바라본다. 우리는 세계 속에 속해있음을 기억하게 한다.

‘갯벌 오줌싸개’라는 재미있는 작품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웃게 하는 분수형 조형물로 익살과 유머가 가득하다.

‘크루징 투게더(Cruising Together)’는 지구본과 거대한 아치 사이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수로 만들어진 공원을 헤엄치는 듯한 모습이다.

이 밖에 공원 속 작은 공원인 전통공원에는 익살스러운 동물 나무 조각, 장독대와 물레방아가 있으며 전통공원 근처의 구름다리는 센트럴 파크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최고의 포토존이다.



달빛 축제 공원



송도국제화도시의 근린공원에 숨겨진 문화를 즐기다

북쪽으로 있는 기존 시가지와 남쪽으로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 공동주택지의 완충지역으로 개발된 이 공원은 60m 폭의 곡선형 저수로로 수로 양쪽 둔치에 생태공원과 수변공원 및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환경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건설되었다. 환경친화적인 다양한 경관과 다양한 시설은 시민의 여가 활용공간으로 사용되며 자연이라는 주제를 가진 상징공원으로써 환경 학습공간으로 활용된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진 이 공원의 기본 개념은 '수풀이 우거진 녹지공간'이다. 이 곳에는 국제 수준의 대공연이 가능한 대공연장과 보조공연장 등 야외공원장과 방음동산, 화장실, 주차장, 진입광장, 생태숲이 구성되어있다. 대공연장은 한국 최대 규모의 현대식 야외공연장으로 3만명이 관람할 수 있는 규모다. 2013년과 2014년도에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했다.





TIP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Pentaport Rock Festival)

매년 여름 인천에서 열리며 한국의 락 음악가들은 물론 세계의 유명 뮤지션들도 참여하는 한국에선 드문 락 페스티벌이다. 펜타포트(PENTA-Port)는 인천광역시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내세웠던 도시전략이다. 트라이포드(Tri-port), 즉, 공항, 항만, 정보 포트(Airport, Seaport, Teleport)에 비즈니스, 레저분야(Business-port, Leisure-port)를 추가하여 다섯가지를 결합시킨 신도시 전략으로 국제적 허브도시, 동북아 중심 도시로 성장한다는 자연주의 도시 컨셉에서 유래되었고,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 5개의 철학(MUSIC / PASSION / Environment Friendly / D-I-Y / Friendship)과 정신을 표방하기도 한다.



TIP

24호 근린공원

2014년 준공된 24호 근린공원은 송도국제도시의 남측 해안쪽인천대학교 뒤에 위치한 공원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캠핑 문화와 젊음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8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도시



송도국제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문화와 가깝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를 채운 건축물들의 아름답고 개성 있는 디자인은 다양한 촬영지로 소개되어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트라이볼은 독특한 외형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컴팩 스마트시티 등의 건축물에 설치된 상설 전시장과 공연장은 센트럴파크 등 도시와 연계하여 실내, 외에서 각종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곳곳에는 독특한 조형물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문화 공연장에선 매달 새로운 문화 공연이 열린다. 굿마켓, 인천음악불꽃축제, 송도세계문화축제 등 매년 열리는 축제도 빼 수 없는 볼거리다.



트라이볼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명소,
아름다운 곡선미의
건물을 탐닉하다

송도에서 가장 많은 TV드라마와 CF 등에 등장한 트라이볼(Tri-bowl)은 세 개를 의미하는 트리플(Triple)과 그릇을 의미하는 볼(Bowl)의 합성어다. 센트럴 파크역 바로 옆에 위치해있으며 장방형의 수경 위에 떠 있는 세 개의 그릇 모양 건물은 각각 하늘(공항), 땅(광역교통망), 바다(항만)가 잘 조화된 인천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워낙 독특한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어 가는 곳으로 특히 아름다운 야경이 유명하다.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한 이곳은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열어 송도라는 도시에 문화적 즐거움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물 위에 떠있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를 상징하다

2009년 열린 인천 세계 도시축전 기념관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금까지 건축으로 지어진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록 넓어지는 구조로 곡선 형태의 바닥에 평평한 천장 형태의 뒤집어진 원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을 역셀 구조라고 부르는데, 외관 어디 서도 직선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곡선형태로 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원뿔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의 구조물 3개가 상부에서 하나로 연결된 삼각 구도의 건물은 바다를 의미하는 수공간 위에 떠있다. 송도, 청라, 영종을 상징하는 3개의 건물은 각각 존재하지만 조화를 이루며 상부가 연결되어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큰 메타포를 만든다. 관람객은 수공간과 이어진 긴 브릿지를 통해 구조물의 아래로 이동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바다를 건너 미래 사회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착하는 것처럼 경이롭고 즐거운 일이다.

트라이볼은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사회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2010 우수디자인 선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미국 AIA colorado 2010 DESIGN Award에서 Honor Award를 수상했다. 이 밖에 각종 TV드라마와 CF,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이용되며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해가 지면 패널들 사이에 설치된 100여 개의 LED 등이 건물과 건물 이 놓여진 장방형의 수경(Reflecting Pond)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물에 비친 불빛과 건물의 모습이 환상적이면서 미래적인 풍경으로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한다.





1. G-Tower 문화공연
2. IFEZ 공원콘서트
3. 굿마켓
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5.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
6. 음악불꽃 축제



TIP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축제

1. G-Tower 문화공연 및 행사

IFEZ만의 차별화된 문화공연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G-Tower 대강당, 콩코스홀, 하늘정원 등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 및 행사가 개최된다.

G-Tower 대강당: 국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

G-Tower 콩코스홀: 런치콘서트, 미술전시 등

G-Tower 하늘정원: 프로포즈 이벤트, 패밀리 이벤트

2. IFEZ 공원콘서트

4월~10월 주말에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 내 공원에서 초청가수, 밴드, 동아리 등의 음악 및 퍼포먼스 공연으로 이뤄진다.

3. GCF[Green Culture Festival] 축제

2014년 9월에 개최되었다. 이 페스티벌 및 전시는 시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환경 스토리를 담아내는 랜드마크 특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도심 예술을 통해 녹색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생태계의 심각성을 문화예술적으로 다함께 공감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4.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

(The Brilliant Motor Festival)

현대자동차와 IFEZ,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간 1-2회 송도 국제업무지구 인근에서 개최될 한국 최대의 도심 자동차 종합 문화축제이다. 현대자동차의 '리브 브릴리언트(Live Brilliant)'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자동차 문화,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

2014 코리아 스피드페스티벌(KSF) 개막전 도심 레이싱 대형 K-POP 콘서트

수소연료전지차 시연 등 현대자동차 신기술 전시 및 체험 드라이빙 스쿨 및 도심 서킷 체험 드리프트 대회 등.

5. 음악불꽃 축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음악과 불꽃의 조화를 통해 '음악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이 행사는 '음악과 조화된 불꽃쇼'로 2014년 10월 11일 송도 인천아트센터 인근 호수에서 개최되었다.

6. 송도세계문화 축제(송도맥주축제)

2011년부터 매년 9월에 맥주를 주제로 전 세계 100여종의 맥주 및 전통주와 막걸리를 시음하고 구입하며 즐겨볼 수 있는 이 축제는 맥주와 전통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 세계 전통 문화체험, 전통 연회 공연, 각종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9

가치와 함께 성장하며 기억하는 도시



원래 갯벌이었던 부지를 메우고 새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하고 단단한 땅으로 거듭난 송도 국제도시는 그 어느 곳보다 자신의 역사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국제도시를 꿈꾸며 그 꿈을 이뤄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신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송도국제도시의 노력은 모두와 함께 공유되고 나눠지는 것이 마땅하다.



컴팩스마트 시티

기억하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인천도시탐험

만약 당신이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가 궁금하다면? 간단하다. 컴팩스마트 시티에 가면 된다. 이곳은 인천의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 담아 표현하는 전시&관람 시설이며, 인천을 재발견하고 인천의 역사를 재조명해 인천의 미래를 전망하는 곳이다. 내부의 다양하고 정교한 입체모델은 그 사실감으로 다양한 감탄을 자아낸다. 인천의 도시계획관으로 불리며,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주요 시설물로 세워졌다. 다른 홍보관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인 글로벌 도시 마케팅 개념이 적용되어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 과거를 잘 아는 일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다. 송도는 그것을 알고 있다.



1층에는 미래도시 인천으로 떠나는 즐거운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원형공간에 물, 바람, 레이저 등의 특수연출을 활용해 만든 입체영상관인 5D영상관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인천의 바닷길을 중심으로 펼쳐진 개척과 도전의 역사를 한국 근대사를 이끌어 온 인천의 대표적 시설을 세트 모형으로 재현해 소개하는 고대 및 근대전시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주요내용을 그래픽 패널과 영상으로 소개하며 체험영상으로 미래도시의 비전을 연출하는 기획전시관이 있다.

2층에는 대형영상과 모형이 하나로 연동되어 인천을 연출하고 이를 통해 자랑스런 인천의 오늘과 내일을 전망해보는 인천모형관과 인천의 문화코드를 체험해볼 수 있는 참여형 전시실인 체험전시실과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U-City정책의 주요 내용을 영상과 그래픽으로 소개하여 주요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코너인 기획전시관II가 구성되어 있다.

3층은 미래도시 IFEZ를 만나는 인트로 공간으로, IFEZ 인천의 출범과 역할을 소개하고 성장하고 있는 송도, 청라, 영종의 미래 도시모형을 볼 수 있는 IFEZ모형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된 영상구성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송도, 청라, 영종의 영상을 3D입체영상과 효과를 이용해ダイナ믹하게 IFEZ를 홍보하기 위해 'Heartbeat of the World, IFEZ'라는 주제로 상영하는 4D입체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다. 도시는 사람과 같다. 과거를 통해 현재가 완성되며 미래가 시작된다.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듯, 도시도 역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가까워지기 어렵다. 컴팩트마트시티는 인천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모형과 영상, 설비를 통해 도와주는 곳이다. 컴팩트마트시티에서 인천도시탐험을 하는 동안, 인천을 재발견(POTENTIAL)하고 인천의 역사를 재조명(HISTORY)하며 인천의 미래를 전망(FUTURE)하는 등 글로벌 도시 인천(WORLD)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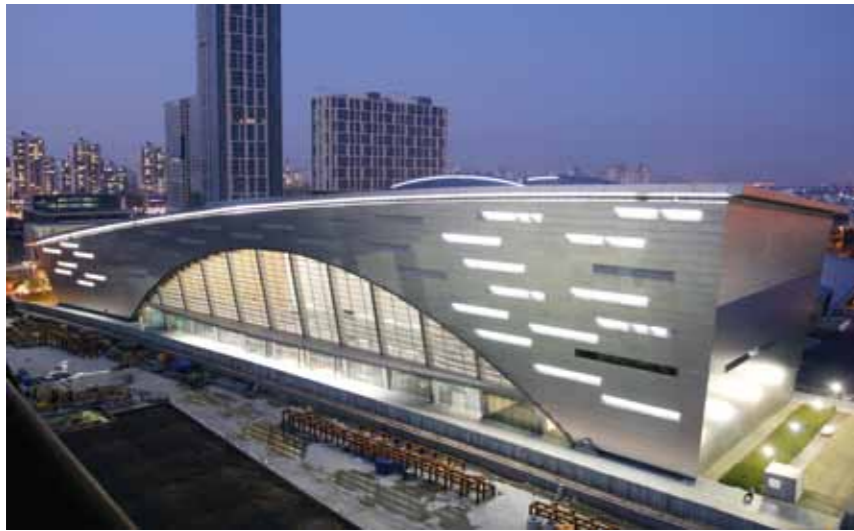
컨벤시아

태백산맥의 기상을 닮은 MICE 산업의 전초기지로 우뚝 서다

태백산맥줄기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한국의 미를 살린 이 건물은 5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모습으로 넓은 세계를 향해 비상하려는 컨벤시아의 진취적이고 컨벤션센터로는 최초로 LEED 인증을 획득했다.

송도에서 큰 규모의 국제회의나 행사 등이 열리기 때문에 한번쯤 들르게 되는 이곳은 송도에 입주할 기업들과 대규모 공단에 있는 기업들의 컨벤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장이자 행사, 회의장이며 컨벤션센터 단지의 중심건물로 호텔, 동북아무역센터, 리테일 센터 등의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등 주변 환경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도시 인프라,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국제업무도시 송도의 전시 컨벤션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있다.

현재의 컨벤시아 뒤편에 건립될 2단계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전시실과 회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컨벤시아 2단계가 건립되면 IFEZ가 '국제기구 도시'로 도약하고 동북아 MICE산업의 허브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Business & Pleasure(비즈니스도 즐거움도!)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각종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이 되기 위한 컨벤시아의 슬로건이다. 비즈니스 업무라 해도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으며,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행사와 계절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컨벤시아는 센터 주변의 각종 놀거리와 먹거리, 숙박 등의 정보를 담은 주변맵(Map)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MICE KIT 쿠폰북, 뉴스레터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로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정리해 전달하고 있다. 3D시뮬레이션, 유튜브(지식공유플랫폼), 스마트 기기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마케팅 기법을 통해 사람들과 직접적이고 입체적으로 소통하고 있기도 하다.

인천의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컨벤션센터인 이곳은 개관 후 4년 동안 'G20 재무차관·중앙부총재회의', 'UN국제모의유엔회의', '세계장애대회',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비롯해 연간 500여건이 넘는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MICE산업의 랜드마크이자 시민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천은 송도컨벤시아 오픈 이후 최초로 MICE 개최도시 4위 진입하는 등 고품격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컨벤시아는 각종 CF,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전문전시회, 콘서트, 기업행사 등에 쓰이는 제 1, 2 전시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행사 규모에 따라 2개실 통합도 가능한 활용도 높은 전시 공간이다. 국제회의, 연회, 패션쇼, 각종 이벤트 등에 사용되고 있는 프리미어 볼룸은 최대 16실까지 나뉘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이며 이동형 무대시설로 활용도를 높이고 4개국 동시통역시스템과 영상음향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로 어떤 행사이건 최상의 상태로 연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각종 회의, 소규모 심포지움 및 교육행사, 각종 이벤트 등에 이용되는 회의 공간은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0

세계를 향해 열린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개항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인천의 역사는 열린 문명의 역사다. 인천경제 자유구역은 인천 도심과 8km, 서울 중심지역에서 50km 의 거리에 있으며, 인천항과 인접하고 수도권 의 주요 대도시에서 60~90분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동북아 동남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북태평양 항공노선과 유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항공노선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유럽과 북미대륙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길목으로 항공기의 논스톱 운항이 가능해 물류 거점으로서 빼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인천공항과도 가깝다. 그러한 배경이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인천대교

바다 위에 설치된
고속도로를 달린다

2009년 10월에 완공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기반시설로 송도의 풍경을 완성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의 이 다리는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동북아 허브의 교량이라고 불린다. 총 연장 21.38km로 한국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이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형식의 특수교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리의 완공으로 인천과 서울 남부,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소요되는 주행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되었고 제 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연간 4,70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약 5만 2천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규모의 거대함과 아름다운 야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52개월이라는 짧은 공사기간과 바닷바람, 서해 특유의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 안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9년 완성되어 시원하게 뻗어있는 이 다리를 보면 누구라도 가슴이 뻥 뚫리는 감탄을 하게 된다. 첨단공학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이 엄청난 다리는 수많은 기록과 많은 화제를 가지고 있다.

사장교 형식인 이 다리의 총 길이는 21.38km로, 왕복하면 마라톤 코스인 42.195km가 나오며 길이만으로 세계 7위다. 사장교란 커다란 두개의 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다리(주빔)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교량을 말한다. 주탑의 높이는 63빌딩(249m)보다 조금 낮은 238.5m로 한국에서 가장 높다. 주탑 사이의 간격을 주경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기술력의 차이를 증명한다고 한다. 인천대교 주탑의 주경간은 800m로 한국 1위이자 세계 5위에 해당한다.

인천대교에 사용된 가장 굵은 케이블에는 직경 7mm 철선이 301개 들어가있는데, 이 철선들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52,948km로 한국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뉴욕까지 가는 거리가 나온다. 인천대교를 실제로 달려보면 양 옆에 바다를 두고 달리는 시원함과 실제로 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친 바닷바람, 알파벳 'Y'를 뒤집은 모양의 거대한 주탑의 크기에 놀라게 된다. 2013년 한국의 토목 구조물로는 처음으로 한국관광기네스에 선정되었다.

2005년 12월 영국의 건설전문지 '컨스트럭션 뉴스(Construction News)'는 인천대교를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유로머니(Euromoney)'가 선정한 '2005 올해의 최우수 PF-아태 지역 교통인프라' 부분 상을 수상으며 2010년에는 일본토목학회(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로 평가되는 '다나카상'을 수상했다.



인천국제공항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8년 연속 1위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꿈꾸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곳 영종(永宗)은 ‘긴 마루’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이곳에 활주로가 들어설 운명을 그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해지곤 한다. 뿐만 아니라 영종도 주변의 땅 이름에는 비행기와 관련된 것이 많다. 영종도는 원래 ‘자연도’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자줏빛이 나는 제비’라는 의미이며 영종도 북쪽에 위치한 응도는 ‘매섬’이라고 불렸다. 영종도에 위치한 운중동에는 잠자리를 의미하는 ‘잔자리 마을’이 있으며 운서동은 ‘금승’이라고 하여 쇠로된 파리를 의미한다. 영종도와 연결된 용유도는 용이 노니는 섬이란 의미로 이 모든 것들이 항공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에 지어진 이름 안에서 보여지는 우연들은 신기함을 넘어 감탄을 자아내며 영종도와 국제공항의 인연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서해바다 한 가운데 첫 삼을 뜬 이래 20년이 지난 현재의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2001년 개항 초기에 국제선 여객 23위, 국제선 화물 11위였다가 2012년에는 여객 9위, 화물 2위 처리 공항이 되었고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세계 속의 공항으로 성장한 것이다.



만나고 헤어지는 곳, 인천국제공항의 심장 여객터미널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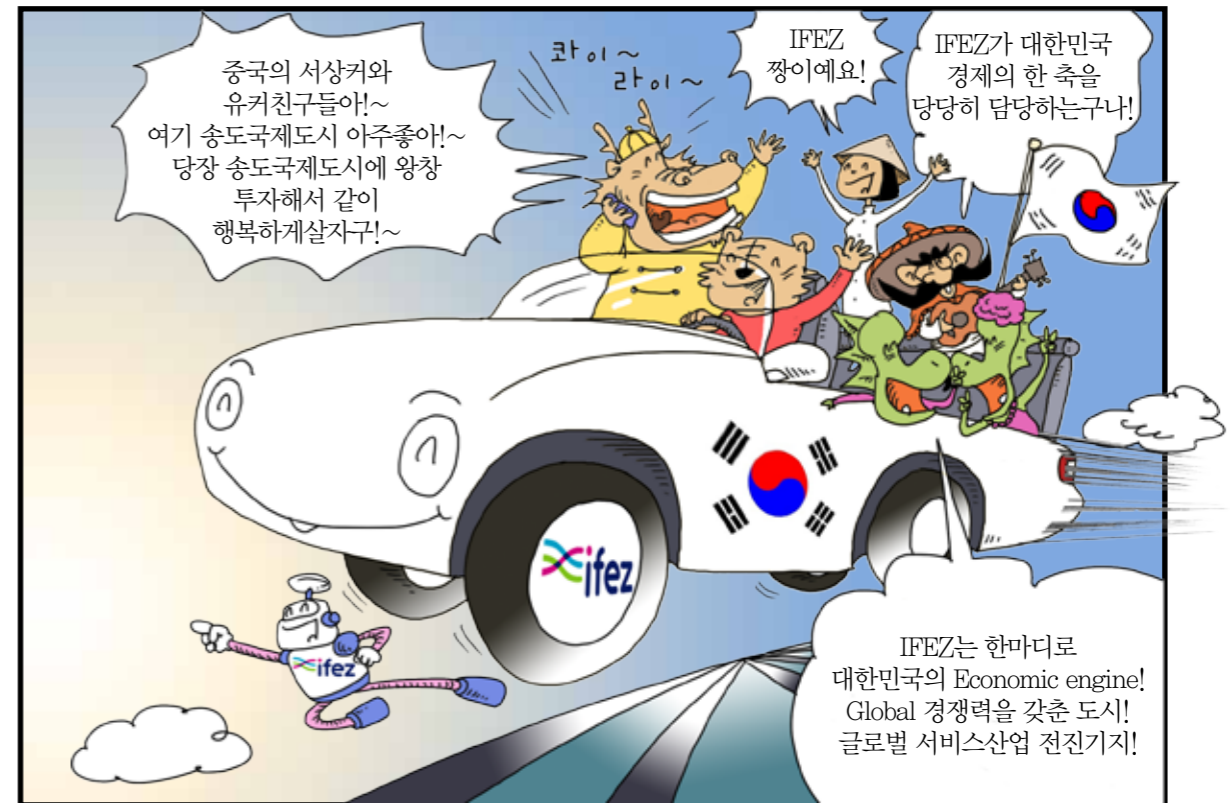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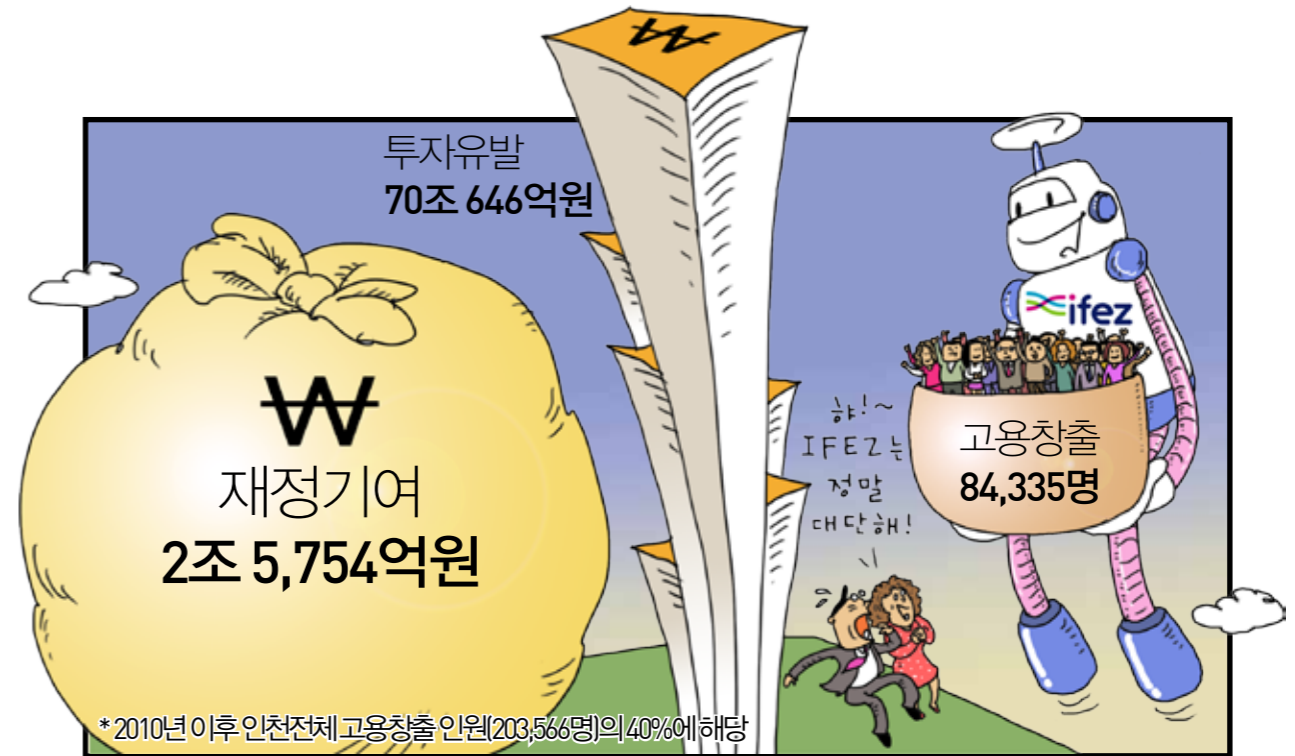
이곳의 디자인은 21세기에 맞춰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한국과 최첨단 공항의 이미지를 상징화하고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기 위한 곡선을 응용하는 한편, 전통문화 양식을 형태와 재료, 색채로 표현해 반영했다. 외관은 대형 선박의 돛대를 구상화하여 리듬, 안정성, 예술적 조형미를 갖추었으며 국가관문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 궁궐의 성문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자연광과 내부 조경을 조성해 즐거운 경험과 서비스, 편의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동북아를 대표하는 공항에서 모든 고객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항, 대한민국의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우뚝 서게 될 인천공항의 미래는 밝다. 그들은 지금 공항이라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와 예술의 향연장이자 휴식 공간, 모든 고객이 자부심과 함께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행지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IV 만화로 보는 IFEZ 비전



*서상커[奢尙客] 고급 호텔에 묵으며 백화점을 찾아 수천만~수억 원대 쇼핑을 하는 중국인, '서상[奢侈]'은 럭셔리 스타일이란 뜻
*유커[游客] 중국인 관광객.



* 미국의 'CNN' 방송은 2009년부터 "송도 국제도시는 저탄소 녹색 모범도시"라는 제목으로 10회 이상 방영해 왔으며,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디스커버리'는 송도 국제도시의 '친환경 녹색사업'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09 세계환경포럼' 개최지인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각국 정상들은 친환경 미래 첨단도시를 알기 위해서는 송도 국제도시를 봐야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부록 | 건물 주소록

건물 주소록

건물명	주소	연락처
G-Tower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032-453-7114
NEATT 동북아무역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입주 중
POSCO E&C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032-748-2114
셀트리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	032-850-5000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107	032-455-3112
갯벌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032-260-0795
미추홀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032-260-0700
다샵퍼스트월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032-835-5114
센트럴파크 I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032-859-6400
센트럴파크 II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032-834-8185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09	032-850-8000
NC큐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87	032-723-6300
채드릭 국제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97번길 45	032-250-5000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로 119	032-626-0600
센트럴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6	032-721-4406
달빛 축제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50	032-721-4406
트라이볼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032-760-1014
컴팩스마트시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032-850-6000
컨벤시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032-210-1114
인천대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교 고속도로 3	1577-2600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032-745-8281

기업체 입주현황 (송도)

사업형태	입주업체 수	사업형태	입주업체 수
건설업	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광업	2	운수업	18
교육서비스업	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금융 및 보험업	2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7
도매 및 소매업	103	제조업	104
부동산업 및 임대	6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1	하수, 폐기물 처리	6
숙박 및 음식점업	36	합계	574

UN기구 입주현황

※ G-TOWER내 입주 현황		
기구명	주요 업무	연락처
유엔 아·태정보통신원 (UN APCICT)	ESCAP 회원국, 아프리카, 중남미의 정부, 대학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 보급	032-458-6678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UN ESCAP) / NEASPEC 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	지속가능한 개발(녹색성장,에너지효율성) 정보통신기술 및 재난위험 관리	032-458-6602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아태사무소(UN CITRAL)	국제 상거래 분야의 조화와 통일을 선도하여 국제거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	032-458-6542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EAAFP)	동아시아 - 대양주 이동경로상의 철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	032-458-6509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 국제방재연구소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 황사, 지진, 가뭄 관련 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032-458-6550
녹색기후기금 사무국(GCF Secretariat)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지원	032-458-6059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선거관련 법제 및 절차 개선 지원을 통하여 후발 민주국가의 체계적인 정치발전 지원	032-455-7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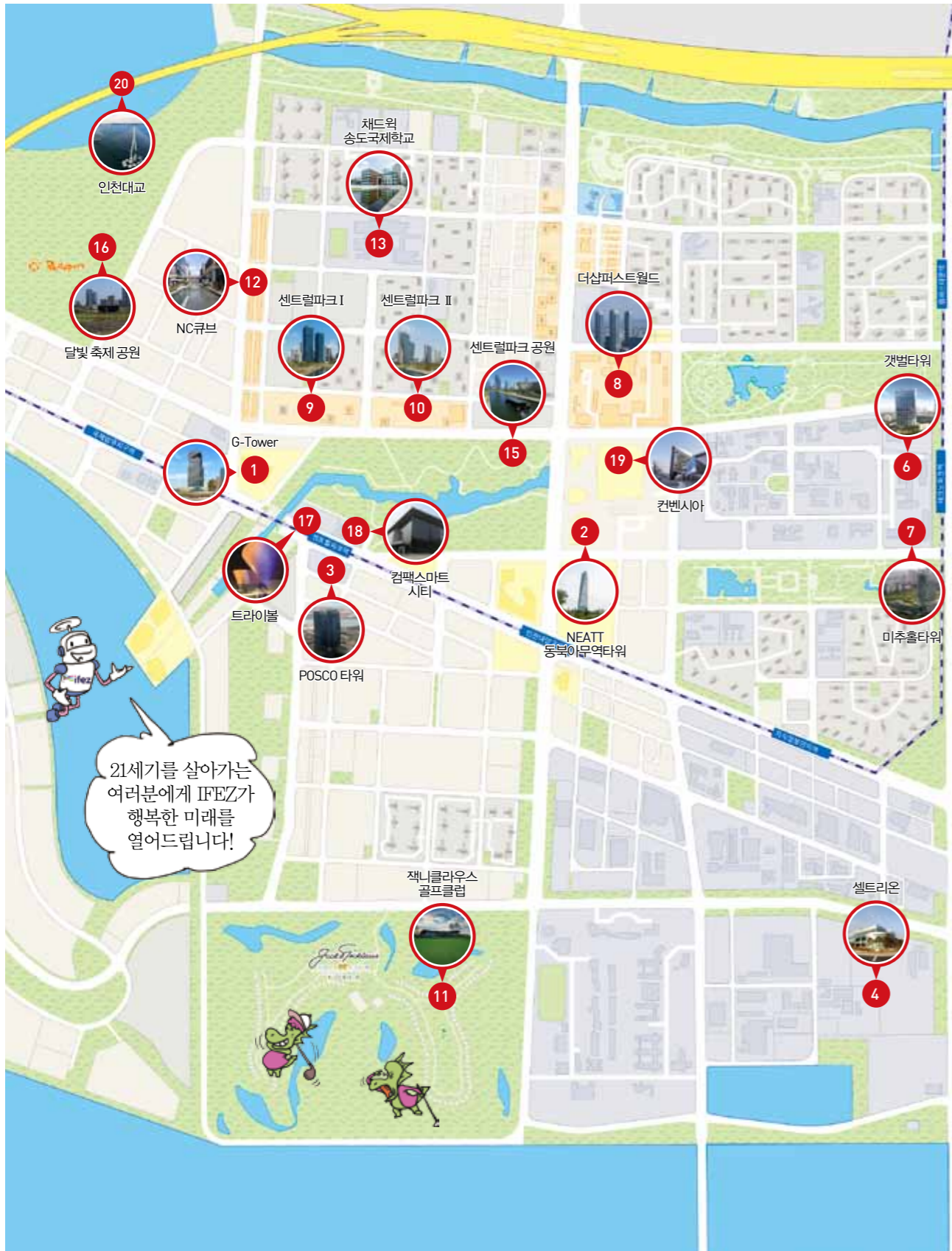
※ G-TOWER외 입주 현황		
기구명	주요 업무	연락처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사무국)	아시아 지역의 생물공학관련 지식·정보·인력 교류 촉진 (송도테크노파크 B-5층)	032-260-0066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UN OSD)	아·태지역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수립지원을 위한 협력 (연세대 국제대학교내)	032-822-9087
세계은행 한국사무소(World Bank)	세계은행과의 금융 업무 협력 강화(포스코 E&C타워 37층)	032-858-8754

호텔 현황

상호	주소	등급	객실	연락처
쉐라톤 인천호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특1	321	032-835-1000
베니키아프리미어 송도브릿지호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33	특2	241	032-210-3505
오리카이 송도파크호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51	특2	300	032-210-7502
오쿠우드 프리미어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특2	423	032-726-2000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3	특2	300	032-310-5000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1	특2	202	032-250-0000
파라다이스 호텔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7	특1	173	032-762-5181
그랜드하얏트 인천	인천광역시 영종 해안남로 321번길 208	특1	1,022	032-745-1234
하버파크 호텔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7	특2	213	032-770-9500
베스트웨스턴 인천에어포트호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8-27	특2	305	032-743-1000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오픈중	30	오픈중

국·내외 대학 현황

학교명	주소	연락처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과학로 85	1599-1885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12	032-830-7000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032-835-8114
한국 뉴욕주립대(SUNY Korea)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032-626-1114
조지메이슨대(George Mason Univ)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032-626-2000
겐트대(벨기에)(Ghent Univ)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032-626-4002
유타대(Univ of Utah)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032-626-4505



Songdo Map / Index 송도 안내지도 / 인덱스



1. G-Tower	56
2. NEATT 동북아무역타워	67
3. POSCO E&C	73
4. 셀트리온	79
5. 삼성바이오로직스	80
6. 갯벌타워	84
7. 미추홀타워	89
8. 더샵퍼스트월드	95
9. 센트럴파크 I	98
10. 센트럴파크 II	101
11.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105
12. NC큐브	109
13. 채드워 국제학교	115
14.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118
15. 센트럴파크 공원	127
16. 달빛 축제 공원	132
17. 트라이볼	139
18. 컴팩스마트시티	147
19. 컨벤시아	151
20. 인천대교	157

스토리텔링 콘텐츠 가이드 북



발행일 2014년 12월
펴낸곳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

만든사람들

- 총괄기획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웅
- 진행 공보문화과장 김동희, 문화사업팀장 전병길, 오혜원
- 취재 및 글 이수인 작가, 파이콤
- 사진 IFEZ 심현우, 수록된 회사 홍보팀 제공
- 만화기획제작 한동주 화백
- 만화배경그래픽 이옥희 실장
- 아트디렉터 설명성 이사
- 디자인 하나로애드컴
- 촬영 김석영
- 인쇄 범일인쇄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 - Tower
전화 032-453-7092 팩스 032-453-7089
홈페이지 <http://www.ifez.go.kr>

※ 이 책의 저작권은 작가와의 협의에 따라 IFEZ에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IFEZ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